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辛 泳 周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陶谷 李宜顯의 簡嚴追求와
文學的 具現

- 碑誌類를 중심으로 -

2012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史 京 華

陶谷 李宜顯의 簡嚴追求와
文學的 具現

- 碑誌類를 중심으로 -

辛 泳 周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史 京 華

認 准 書

史京華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본고는 영조 시대 3대 文衡을 지낸 陶谷 李宜顯의 문장론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그의 산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지문에 簡嚴의 미학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곡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까지 활동하면서 漢文四大家와 고문의 완성자로 평가받는 농암 김창협이 문학적 성과를 계승하여 古文論을 심화 발전시킨 문장가이다. 따라서 II장에서 陶谷의 삶의 궤적을 통해 학문의 토대를 이루는 과정과 문장론 형성의 배경에 어떠한 경험들이 작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創新의 논리와 簡嚴한 문장론에 대해 다루었다. 도곡은 前後七子를 중심으로 한 명나라 문장가들이 가진 擬古主義의 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古文을 따르면서도 개성적인 글쓰기를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朱子主義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六經을 문장쓰기의 典範으로 설정하였으며, 諸子書를 통한 문기함양의 필요성을 주장한 모습을 통해 학문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었다. 또 그의 문집에 실린 산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지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簡嚴’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이어 IV장에서는 그의 간엄한 글쓰기가 실질적으로 구현된 비지문의 실례를 봄으로써 도곡의 간엄추구적 경향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V장에서는 간엄의 미학이 구현된 도곡의 비지문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陶谷은 전대 선배 문인들이 가진 문장론을 아우르면서 이를 심화·발전 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명나라 문장가들의 擬古主義를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간오하면서도 평창한 고문의 성취, 문장 창작의

전범으로서 육경의 제시, 제자서의 수용을 통한 문기함양, 간엄한 문장의 추구 등 매우 풍성하고 구체적 산문이론을 남긴 사람이다. 그리고 이론을 주장한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양의 碑誌文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정치가나 사상가가 아닌 문장가로서의 陶谷이 조선 후기 문단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目 次

論文概要

I. 머리말	1
1. 선행연구 검토	1
2.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	2
II. 이의현의 生涯	5
III. 創新의 논리와 簡嚴의 文章論	14
1. 擬古에 대한 반대와 創新의 추구	15
2. 典範으로서의 六經과 제자서의 수용	23
1) 擬古派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본 六經의 중요성	23
2) 諸子書를 통한 文氣의 함양	27
3. ‘簡嚴’의 추구	34
IV. 다양한 편장 구성을 통한 簡嚴美의 추구	42
1. 동일 어구의 반복을 통한 分章法의 구사	44
2. 주요 사건 중심의 일관된 서술	55
3. 대화체와 직접인용의 활용	60
4. 銘을 통한 진정성의 획득	69

V. 陶谷의 碑誌文이 가지는 文學史的 意義75

VI. 맺음말79

參考文獻

ABSTRACT

I. 머리말

1. 선행연구 검토

陶谷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정옥자가 1984년 『韓國史論』에 발표한 「陶谷과 그의 文學觀」이란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정옥자는 老論文衡이자 古文家로서의 陶谷의 위치, 道文一致의 문학관, 북학과와 문체반정에 끼친 영향을 다루면서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陶谷을 바라보았다. 이후의 연구들은 도곡이 자신의 문장론을 개진한 저술을 인용하면서 그가 가진 고문론을 연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박은정은 陶谷이 당송고문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진한 의고문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육경에 근본한 글쓰기를 주장한 면모를 다루었다. 또 보수적 입장과 혁신적 입장을 두루 갖춤으로써 조선 중기와 조선후기 문학계를 이어주는 교량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기정순은 陶谷의 古文論을 대상으로 하여 육경의 중요성과 문기함양을 위한 제자서 읽기의 필요성 등을 논하였다. 정순희는 道와 文의 관계 양상을 통해 陶谷의 고문론이 가진 특징을 살폈고, 산문 작법론이 문기론과 언어사용 · 편장의 운용을 통해 구현되는 양상, 중국과 우리나라 문인들에 대한 비평을 살폈다. 또한 비지문과 시를 통해 陶谷의 산문작법론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았고, 마지막으로 17세기부터 18세기 고문론의 전반적 특징을 유추해 보았다. 1)

이상 몇 편에서 보이는 陶谷의 문장론에 대한 논지는 대체로 일치한다. 육

1) 정순희, 『陶谷 李宜顯의 古文論과 文學』,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기정순, 『陶谷 李宜顯 文章論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박은정, 『陶谷 李宜顯의 古文論 研究』,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8, 등이다. 이 외에도 이연희, 『陶谷 李宜顯의 文學觀 研究』,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김하운, 『陶谷 李宜顯의 作文論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민복기, 『陶谷 李宜顯의 反擬古의 散文 批評』, 동양한문학연구, 2007 등 몇 개의 학술지 논문이 있다.

경을 강조하면서도 제자서를 통한 문기함양을 피력하는 개방적 사고와 사상가 보다는 문장가로서 행세한 陶谷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大同小異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순희의 논문에서 약간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 글 쓰기 속에서 그의 고문론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특히, 그가 많은 편의 비지문을 쓴 것으로 보아 陶谷은 자신의 산문이론을 여기에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방향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는 정치 · 사상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典範들이 모색되던 때로 특히 문학면에서 산문이론, 즉 古文論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시기이다. 이 古文論은 한문 사대가인 李廷龜 · 申欽 · 張維 · 李植을 중심으로 선조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18세기 農巖 金昌協과 陶谷 李宜顯에 의해 체계화 되어, 구한말 김택영에게까지 이어진다.

본고에서 살펴볼 陶谷은 영조대 3대 文衡으로서 선배 문인들인 한문사대가와 古文의 완성자로 인정받는 金昌協의 문학적 성과를 계승하여 古文論을 심화 · 발전시켰다고 평가된다. 특히 金昌協의 직계제자라는 점은 陶谷의 문장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陶谷은 전·후칠자²⁾로 대표되는 명나라 문장가들의 擬古主義를 비판하는

2) 前七子는 李夢陽(1472~1529) · 何景明(1483~1521) · 徐禎卿(1479~1511) · 康海(1475~1540), 王九思(1468~1511) · 邊貢(1476~1532) · 王廷相(1474~1544) 7명이며, 後七子는 李攀龍(1514~1570) · 王世貞(1526~1590) · 謝榛(1495~1575) · 宗臣(1525~1560) · 梁有譽(?~?) · 吳國倫(1524~1593) · 徐中行(?~1578) 7명이다.

것과 동시에 간오하면서도 평창한 古文의 성취, 문장 창작의 典範으로서 六經의 제시, 제자서의 수용을 통한 文氣 함양, 간엄한 문장의 추구 등 金昌協과 더불어 가장 풍성하고 구체적인 산문이론을 남겼다.

그리고 그의 문장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 중 하나가 바로 碑誌文이다. 碑誌文은 대부분 묘주의 死後, 청탁에 의해 쓰는 글로 묘주에 대한 阿諛的 경향을 가지기 쉬우며, 특히 한정된 분량으로 저술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작자가 지닌 문학적 역량을 모두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장력을 시험하기엔 더없이 좋은 문체라 할 수 있다.

陶谷의 경우 『陶谷集』 안에 수록된 산문 가운데 전체의 반 가까운 분량을 碑誌文으로 채우고 있다. 그는 『陶谷集』의 「遺識」에서 저술한 글의 총목을 밝히고 있는데³⁾, 그 가운데 상당부분이 현재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문집이 작자의 문학관이 가장 잘 드러난 글들을 수합하여 엮은 것이라고 할 때, 문집에 碑誌文이 이토록 많이 실려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陶谷은 자신이 주장한 산문이론을 구현하기 위한 매개로 碑誌文을 집중적으로 저술하였고 문집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문장론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수용하여 이를 정리·보충하는

3) 李宜顯, 「遺識」, 『陶谷集』, 권 26 : 『韓國文集叢刊』 181, 416면 : 余人品庸下, 無可傳示於後世, 文字短拙, 尤爲見嗤於時眼, 而兒子生時, 猶謂出自其父, 妄加愛護, 勤勤收葺, 間多自寫成帙者. 今不忍遺墨之并就泯滅, 仍爲藏留. 且念吾死之後, 爲吾子孫者, 尤宜諳悉其五十年出處言論之大致, 故一併畀諸家人, 俾授爲亡子後者. 總目在下, 漫韻六卷、古律詩三千二百餘首、章疏錄四卷、疏筭四百餘首、啓議狀牒等錄二卷、啓辭收議呈辭供狀一百四十餘首、應製錄一卷、大小代撰文字七十餘首、金石錄八卷、碑碣誌表狀一百八十餘首、壹惠錄一卷、諡狀十四首、述德錄一卷、先考妣狀表年譜四首、志過錄一卷、自誌自銘紀年附亡室狀誌七首、雜述錄二卷、散文七十餘首、竿牘錄一卷、尺牘一百二十首、餘贅錄一卷、投荒時歸田時雜識、堂后日記二卷、甲戌乙亥假注書時丙丁日錄三卷、丙子丁丑翰林時史草簪筆錄四卷、丙子丁丑戊寅翰林時筵說燕行日錄三卷、庚子壬子再赴時西遷日錄二卷、謫雲山時日錄、私考二卷。自生年至末終, 吾死後, 勿求挽勿立碑事, 既已言及於亡子. 且草祭式, 使亡子書之. 今載雜述錄下卷矣, 吾所撰自誌自銘, 在志過錄中. 此兩文與亡子墓表, 宜先刻埋, 而亡子床石望柱, 尤不可遲緩也. 亡子墓表, 在金石錄續編第四卷矣. 吾兩室誌文及亡子誌文, 吾生時既已燔埋, 今無可論矣.

것으로 陶谷의 문장론을 살펴보고, 이 중 ‘簡嚴’에 대한 부분을 특화시켜 陶谷의 산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碑誌文을 통해 실제로 그의 簡嚴追求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이의현의 生涯

陶谷은 본관은 龍仁, 자는 德哉이며, 호는 陶谷으로 좌의정을 지낸 이세백의 아들이자 파주목사를 지낸 이정약의 손자이다. 어머니는 영일 정씨로 고양군 수정창지의 딸이고, 우의정을 지낸 충정공 정추성의 손녀이다. 그는 1669년(현종 10년) 한양 북쪽 진장방 소격동에 있는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의 생애는 주요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⁴⁾

제 1기는 출생한 1669년부터 26세때 발생한 甲戌換局(1694, 숙종 20년)때까지로 修學期이다.

陶谷은 1669년 출생한 그해 9월 부친의 부임지인 牙山縣으로 따라갔다가 6세에 서울로 돌아왔고, 다음해 다시 부친의 부임지인 洪川縣으로 옮겨가 처음 『訓蒙字會』를 읽었다. 8세(1676년, 숙종 2년)에 소격동으로 돌아와 다음해 1월 『史略』, 唐詩를 읽었으며, 당시 大諫인 李穡과 尹珍山 · 尹以建 형제에게서 배웠는데, 10세에 尹公이 ‘異日公輔器’라고 인정할 만큼 뛰어났다. 또 洞丈인 淳昌 李遇輝와 權顯道에게 배웠으며, 11세에 이모부인 淸道 李秀實에게 『史略』 7卷을 배웠다. 陶谷 이미 이 때부터 독서를 매우 좋아하여 日課 讀書 이외에도 책을 읽어 朝報와 疏章까지 이르렀으며, 관례를 올리기 전에 이미 집안에 있던 책을 거의 다 읽었다고 한다. 이러한 엄청난 독서량은 훗날 그가 여러 제가들의 문장에 대한 비평을 진행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12세에는 『孝經』, 『論語』, 『詩傳』, 『史記』와 唐詩, 韓詩를 읽고 古風詩를 習作하였다. 13세에 『孟子』, 『大學』, 李白詩를 읽고 古風詩를 지었으며, 마을사람

4) 본고에서는 李宜顯의 생애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정순의 『陶谷 李宜顯의 문장론 연구』의 방식을 존중하여 따랐으며, 세부적 내용은 『陶谷集』 권 32의 「紀年錄」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다.

禹弘成에게 왕래하며 공부하였다. 15세(1683년, 숙종 9년)에 農巖 金昌協 선생을 모시고 冠禮를 올렸으며, 觀察使 魚震翼의 딸과 혼인하였다. 16세에는 黃海監營으로 가는 아버지를 따라가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2년동안 『書傳』을 읽고 程式詩를 지었으며, 石潭 · 廣石黃 · 首陽山등을 유람하였다. 또 紹賢書院 · 文憲書院을 방문하였고, 지나는 길에 花石亭 · 映水屏을 두루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혔다. 17세에는 부친의 임소가 平安監營으로 바뀌자 평양에 머물렀고, 이때 여러 景勝地를 두루 돌아다니며 지은 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19세에는 부친의 부임지인 남한산성과 진산성을 따라 다니며 중간 중간 『中庸』, 『論語』, 杜詩를 읽었는데 同學이 없어 공부가 부실하였다고 「紀年錄」에 기록하고 있다.

그가 21세 되던 해(1689년, 숙종 15년) 己巳換局⁵⁾으로 인해 남인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자 수 많은 서인들이 옥에 갇히거나 하향을 하게 되었다. 陶谷의 아버지인 이세백도 송시열의 유배를 반대한 일로 파직되었고, 그의 가족은 하

5) 己巳換局 : 1688년에 소의 장씨가 아들 균을 낳자, 숙종은 균을 원자로 삼아 名號를 정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봉하려고 했다. 이때 영의정 金壽興을 비롯한 노론계는 중전이 아직 젊은데 후궁 소생을 낳은 지 두 달 만에 원자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숙종은 1689년 5월에 이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원자의 명호를 정하여 종묘사직에 고하고 소의 장씨를 희빈으로 삼았다. 이에 노론측의 우두머리인 송시열이 2번이나 상소하여, 다시 반대했다. 그러나 숙종은 이미 원자의 명호를 결정한 이상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분노했다. 이때 남인계인 승지 李玄紀·尹彬, 교리 南致熏·李益壽 등이 상소하여 송시열의 주장을 반박했다. 숙종은 이들과 의논하여 송시열의 관직을 삭탈하여 제주도로 유배하고, 영의정 김수홍을 파직시켰다. 그밖에 송시열의 주장을 따른 많은 노론계 인사를 파직·유배했다. 반면에 權大運이 영의정에, 睦來善이 좌의정에, 金德遠이 우의정에 오르는 등 남인계가 대거 등용되었다. 그뒤 남인들은 서인의 죄를 계속 추궁하여, 송시열은 제주도에서 정읍으로 유배지를 옮기던 중 사약을 받았고, 金萬重·金益勳·金錫胄 등은 保社功臣의 호를 삭탈당하거나 유배당했다. 이어 숙종이 중전 민씨가 원자책봉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중전을 폐비하려고 하자, 이에 재야의 서인이던 吳斗寅 등 86명이 이를 저지하려고 상소했다. 마침내 숙종은 이듬해(숙종 16) 5월 2일 중전을 폐하여 庶人으로 만들고, 6월에는 원자를 세자로 책봉한 뒤 10월에 희빈장씨를 왕비로 冊立했다. 이렇게 서인이 집권 10년 만에 남인에게 정권을 빼앗긴 국면을 기사환국이라 한다.

향하여 고양의 元堂村에 寓居하다가 다음해 2월 廣州의 楮島村에 卜居하게 되었다. 복거하던 시기 딸과 아들을 낳았으나 모두 요절하였다.

陶谷은 己巳年부터 癸酉年까지 학문에 정진하며 『莊子』, 『楚辭』, 『論語』 등 수백편의 책을 읽었으며, 수천 편의 古·律詩와 산문과 변려문 등도 약간 지었다. 즉, 이시기는 經史를 두루 읽고 습작하면서 비평가·문장가로서의 기본을 닦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제 2기는 陶谷이 26세 되던 해에 발생한 甲戌換局⁶⁾(1694년, 숙종 20년)부터 辛壬士禍⁷⁾(1722년, 경종 2년)까지 30여년간으로 그의 仕宦期이다.

陶谷은 갑술환국이 발생하자 성릉사에 우거하고 있던 農巖 金昌協 찾아가 논어를 배우며 좀 더 경학연구에 몰두하고자 한다. 陶谷은 농암 김창협을 스

6) 甲戌換局 : 1694년 노론계의 金春澤과 소론계의 韓重嫻 등이 폐비 민씨의 복위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민씨복위운동을 주도했던 서인들은 기사환국 이래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淑嬪崔氏와의 연결을 통해 궁중과의 연결을 도모하였고, 이를 매개로 왕비 장씨와 남인계의 잘못된 점을 숙종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숙종은 남인을 배척하고 南九萬을 영의정, 朴世采를 좌의정, 尹趾完을 우의정에 기용함으로써 소론 정권을 성립시켰다. 숙종은 기사환국 때 왕비가 되었던 장씨를 禧嬪으로 복귀시키는 한편 노론계 민유중의 딸인 인현왕후 민씨를 6년 만에 복귀시켜 궁중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한편 宋時烈·金益勳·趙師錫·金壽恒·閔鼎重 등 1689년에 화를 당하였던 노론계 인물들에게 다시 작위를 주었다. 반면 남인측은 민암·이의정 등이 사약을 받았고 權大運·睦來善·金德遠 등이 유배당하였다. 이를 갑술환국이라 한다.

7) 辛壬士禍 : 辛丑·壬寅 두 해에 걸쳐 일어났으므로 신임사화라 하며, 일명 임인옥사이라고도 한다. 1720년(숙종 46)에 숙종이 죽고 少論의 지지를 받은 景宗이 33세의 나이로 즉위했는데, 후사가 없었으며 병이 많았다. 그러자 당시의 老論四大臣인 영의정 金昌集, 좌의정 이건명 李健命, 영종추부사 李頤命, 판중추부사 趙泰采가 중심이 되어 경종의 동생인 延祜君을 왕세자로 책봉하자고 주장했다. 소론측은 반대했지만, 경종은 1721년 8월에 대비 김씨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현시켰다. 노론측은 더 나아가 10월에 趙聖復의 상소를 통해 세제 聽政을 주장했다. 이에 경종은 청정을 명했다가 소론의 반대에 부딪혀 환수했으며, 뒤에 여러 번 번의를 거듭했다. 그동안 노론·소론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결국 그해 12월에 司直 金一鏡 등이 소를 올려 세제 청정을 상소한 조성복과 이를 행하게 한 노론4대신을 파직시켜 유배보냈다. 이외에도 다수의 노론측 인물들이 삭직되었고, 소론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 뒤에도 소론의 강경파들이 노론숙청을 요구했는데, 마침 1722년 3월 노론측이 세자 시절의 경종을 시해하려 했다는 陸虎龍의 고변이 있자, 소론측은 이를 기회로 노론4대신을 賜死하게 하고, 수백 명의 노론을 제거했다. 이를 신임사화라 한다.

승으로 모시며 그의 정치 · 사상적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문장론에 있어서 그 영향이 두드러진다. 이 때 陶谷은 科擧에 대한 회의로 초야에서 학문에 전념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金昌協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옛 사람들이 과거를 보는 것은 장차 道를 행하려 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가문의 영화과 일신의 부귀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급제한 후에는 서책은 버리고 名利的 場을 쫓아 다니다가 일생을 마치는 것이 온 세상에 滔滔하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文質에 바탕이 없어서 애당초 도를 행하는데 말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미 아버지가 재상의 반열에 있으니 제가 비록 영달하지 못한다 해도 가문에 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지 관직의 파도 가운데서 머리를 들락날락 하기만 하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에 응시할 때가 아니며 설령 세도가 다시 바뀐다 해도 과거에 나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과 장자들을 쫓아 노닐며 경사를 강구하고 고인의 문장을 두루 보아 스스로 물을 댄으로써 어리석고 비루하여 이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⁸⁾

그러나 이 해 4월 甲戌換局이 일어나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되자 서울로 돌아와 부친 兪正공의 蔭補로 通德郎이 되었다. 그해 인현왕후 중전 복위를 축하하면서 別試인 慶科가 열렸는데, 이 때 부친 이세백이 과거를 보도록 설득⁹⁾하여 初志를 굽히고 과거에 응시하여 次上 2等으로 합격하였다. 主司로부

8) 李宜顯, 「紀年錄」, 『陶谷集』 권 32 : 『韓國文集叢刊』 181, 531면 : 古人應擧, 將以行道。今人不過爲門戶榮與一身富貴計耳。以此旣得科第之後, 拋棄書冊, 追逐名利場, 以了一生, 擧世滔滔, 豈不可慨。吾則文質無所底, 旣無行道之可言。吾父位宰樞, 吾雖未達, 無損於門戶。只爲頭出頭沒於宦海波中, 非我所堪。今日固非應擧時, 設令世道更新, 欲仍不赴擧。從遊先生長者, 講究經史, 博觀古人文章以自澆灌, 免作樵陋無聞之人, 是吾志也。

터 氣가 있다는 칭찬을 받았고, 그 후 별시 문과 전시에 丙科로 합격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農巖은 陶谷에게 편지를 보내 벼슬에 급급하기 보다는 더욱 성현의 글을 읽으면서 훗날에 대비할 것을 권계하였다.¹⁰⁾

단번에 문과에 급제하여 시원스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였다 하니,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 잠도 오지 않았네. 그러나 선비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린 나이에 벼슬 또한 급한 것이 아니니, 보다 큰 것에 뜻을 두어 더욱 깊이 성현의 글을 읽음으로써 훗날의 쓰임에 대비해야 할 것이네. 나의 뜻은 본디 과거에 좋은 성적으로 급제하기를 좌우에게 기대하지 않았으니, 금년 봄 산사에서 만났을 때에 나의 평소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좌우도 알았을 것이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바이니, 헤아려 주리라 믿네.¹¹⁾

이후에도 陶谷과 농암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면서 師承關係를 유지하게 되는데 다음의 글은 단적으로 陶谷이 농암에게 수학한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경서는 선비의 근본이니 만약 많이 읽어서 힘을 얻게 된다면, 첫 번

9) 李宜顯, 「紀年錄」, 『陶谷集』 권 32 : 『韓國文集叢刊』 181, 531면 : 十二日, 中別試解。[是科, 卽以中殿復位之慶, 設行者也。忠正公謂余曰 : “汝志誠可嘉尙, 第今科非例舉, 不可不赴。此後復廢舉, 從事實地, 行汝本志, 無所不可。” 遂不獲守初心, 入場, 以書牘策次上, 得中二等第十人, 主司頗賞以有作者氣。]

10) 여기에 대해 기정순은 농암과 도곡 두 사람의 문제를 떠나 서인의 후계자 양성을 위한 포석으로 이의현에게 거는 농암의 기대가 큰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았고, 정옥자는 이 과거 자체가 서인의 자제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졌고, 도곡에게 과거에 응시하도록 강권한 것은 부친과 농암 사이에 사전에 논의를 거쳐 노론의 후계 양성을 염두한 것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11) 金昌協, 「書」, 『農巖集』 권18 : 『韓國文集叢刊』 162, 86면 : 一舉大闢, 快副庭闈之望, 聞之喜悅, 殆不能寐。然士所當爲, 不止此, 妙年仕宦, 又非所急, 更宜留心於其大者, 益讀聖賢書, 以需異日之用也。區區之意, 本不以一第期左右, 今春山寺時, 固亦知雅意所存。故輒此云云, 想有以諒之矣。

째로 학문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문장을 지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또한 과거에서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젊은 시절에 뜻이 잘못되어 경서를 공부하는 것에 힘을 쓰지 않고 『남화경』을 탐독하여 전질을 5~60번 읽었으며, 그 가운데 마음에 드는 곳은 4~500번 읽었고, 「제물론」은 더욱 더 좋아하여 손이 나올거리고 발이 춤추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읽기를 마치자 글을 써 내려가는 것이 쉬워서 순식간에 열장을 다 썼으나 좋은 글과 나쁜 글이 서로 섞여서 볼만 하지 못했다. 농암선생께 시험삼아 보여드리니 농암께서 꽤 칭찬하셨으나, ‘발이 묶어 잡초가 무성한데도 잘라냄이 없는 병폐가 있다’ 하시고 반고의 『漢書』를 읽으라 권하시며 손수 12권을 뽑아서 주셨다. 드디어 정독하기를 300번 한 후에 글을 지어서 농암께 보이니 ‘문리가 넉넉하고 글의 짜임새가 거칠지 않아서 전보다 훨씬 낫다’ 하시고는 내게 공부에 힘쓰기를 멈추지 말라 하시고 문장을 엮는 법도를 가르쳐 주셨다.¹²⁾

이 글은 陶谷 본인이 제자서를 깊이 탐닉했던 때에 자신의 지은 글을 스승 김창협이 보고 그 병폐를 지적해주면서, 대안으로 『漢書』를 제시해 주었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농암의 가르침대로 정독하였더니 문리가 넉넉해지고 글의 짜임이 원활해졌으며 계속해서 글을 엮는 법을 전수받았다고 언급하였다. 두 사람이 실질적인 사승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급제한 후로 陶谷은 정언, 지평, 지제교 등의 淸要職을 두루 거치면서 승진하였다. 1700년 4월 부인 魚氏가 졸하였고, 1703년에 아버지 이세백이

12)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57면 : 經書爲士之本根, 若多讀得力。則上可爲學問, 中可爲文章, 下亦不失爲場屋高手。而余於少時, 意思誤入, 不務爲此, 乃耽讀《南華》全帙, 讀至五六十遍, 就其中心所喜好者, 讀幾至四五百遍, 至於〈齊物論〉則尤酷好之, 不覺手舞足蹈。讀既, 下筆容易, 頃刻掃盡十紙, 而蛟蚓相雜, 不足觀也。試以舉似於農巖先生, 農巖頗賞之, 而病其荒蕪無剪裁, 勸讀班史, 手選十二傳以授之。遂致精讀至三百遍, 是後作文示農巖, 以爲‘文理有餘而結構不疎, 大勝於前’, 使之不住用工, 仍教以綴文軌範。

서거하자 3년상을 치른 후 1705년 5월 지평으로 다시 벼슬을 시작하여 1707년 이조정랑이 되었으며 동부승지, 이조참의, 대사간을 역임하였다. 1709년 9월에는 외직인 수원부사로 나갔다가 1712년 이조참의가 되었으나 판서 윤덕준(1658~1717)과의 불화로 부제학으로 옮겼다. 1714년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으며, 예조참판, 도승지, 대사성을 거쳐 1717년 대사헌,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러나 12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3년 상을 치루고 1720년 제조로써 정계에 복귀하였다. 숙종이 승하하고 경종이 즉위하자 陶谷은 1721년 53세의 나이로 정 2품인 자헌대부에 가자되고 동시에 의정부 우참찬으로 승진되어 동지정사로 연경에 다녀온다. 이 때의 연행을 담은 기록이 「경자연행잡지」이다. 다음해 예조, 형조, 이조의 장관을 차례로 맡고 숙종실록청 당상이 되었다. 그러나 1722년(경종 2년) 54세때 辛壬士禍로 소론에 의해서 노론계의 대숙청이 자행되자, 陶谷도 정언 정수조의 공적을 받고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다.

3년 동안의 유배생활은 그에게 관직생활로 인해 소홀히 했던 학문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때 자신의 문장론에 대한 기본적 견해를 표명한 「운양만록」을 저술하였다. 또한 그는 이 시기에 四書三經과 『禮記』, 『小學』, 朱書, 韓文을 통독하면서 반복 연구 하였다.

다음은 제 3기로 陶谷의 나이 57세(1725년)에 사면·복권된 후 1745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까지 20여년 간으로 老年期라 하겠다.

1725년 평안도 운산에서의 유배에서 서울로 돌아온 陶谷은 형조판서로 복권되어 소론대신들의 죄상을 논하여 탄핵하였고, 영조대 3대 文衡의 자리에 오른다. 1727년 우의정으로 승진하였으나 7월 丁未換局¹³⁾으로 다시 소론이 정권

13) 丁未換局 : 1727년(영조 3) 영조가 탕평책의 일환으로 老論 강경파를 파면하고 少論을 정권에 참여시킨 일. 영조가 즉위할 때에는 소론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나 곧 이전에 노론 4대신을 역적으로 몰아 신임사화를 일으켰던 소론의 김일경과 목호룡을 처단하고 영의정 이광좌, 우의정 조태억 등을 유배시킴으로써 민진원·정호 등의 노론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듬

을 잡자, 양주의 선묘아래에 있는 도산촌사로 물러난다. 이듬해 이인좌, 박필몽의 난이 일어나자 판중추부사로 서용되어 친국에 입시하였다. 그리고 영조의 왕권안정과 노론의 세력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노력하였다. 이후로 계속 도산촌사에 머물면서 벼슬살이를 하였고, 「陶峽叢說」 104칙을 저술하였다. 1732년(영조8년) 64세로 사은정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후 「임자연행잡지」를 저술하였다. 1735년(영조11년) 67세로 영의정이 되어 김창집, 이희명 두 대신의 신원을 요구하는 노론의 주장을 무마하도록 부탁받았으나 오히려 왕의 하교에 사직을 청하다 영조의 노여움을 사 삭직되었다. 1737년 영중추부사가 되었으며, 1738년(영조14년) 70세 되던 해 元扈에 耆老所에 들었다. 1739년 봉상시 도제조를 겸하였고, 1740년 아들 이보문이 추하는 불행을 당하였다. 1742년 치임을 윤택받아 奉朝賀가 되었으며, 이후 정계에서 물러나 생활하다가 향년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陶谷이 1745년(영조 21년) 4월 6일 서울 남부 명례방 남동의 집에서 별세하자, 국가에서는 사흘간 조회를 하지 않고 예관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그리고 양주 금촌의 마산에 장사하고, 죽은지 2년 후인 1747년에 문간의 시호를 내렸으며, 12년 후 陶谷이 생전에 자찬한 묘표를 세웠다.

그는 甲戌換局·辛壬土禍·丁未換局 등의 혼란한 정국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항상 올곧은 지조로 행세하였으며, 사사로운 보복보다는 청론을 심으려고 노력하여 사람의 신망을 크게 얻었다. 민진원이 죽은 뒤 노론의 영수로 추대되었으며, 老論 四大臣(金昌集, 李頤命, 李健命, 趙泰采)의 신원과 신임옥사의 誣告를 판별하는데 진력하였으며, 몸소 청빈함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그의 문집인 『陶谷集』은 嗣孫 李學祚가 기년록 끝에 기술한 後識의

해에는 노론의 요청에 따라 신임사화를 誣獄으로 판정하고, 신임사화 때 처벌된 노론 被禍者를 신원하는 乙巳處分을 단행했다. 이 상황에서 영조는 노·소 양파의 당쟁을 조정하고자 탕평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노론정권이 왕의 탕평책에는 잘 따르지 않고 소론 공격에만 급급하자 영조는 정미년인 1727년에 소론에 대한 보복을 고집하던 민진원과 정호 등을 파면하고 이광좌·조태억 등을 비롯한 소론을 다시 정권에 참여시켰는데 이를 정미환국이라고 한다.

기록¹⁴⁾으로 보아 생전에 스스로 아들 李普文과 함께 수습하였고, 저자의 遺言에 의하여 家藏 草稿를 물려받은 嗣孫 李學祚가 32권으로 編次하여 1766년에 평안도 관찰사로 있던 외삼촌 申晦의 도움을 받아 鐵活字로 간행한 것이다¹⁵⁾

14) “이 기년록은 先王考 府君이 손수 編摩한 것이다. … 병술년(1766)에 문집이 이루어졌다. 평안도 관찰사 申晦의 財力을 힘입어 芸館 鐵活字로 印出하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15) 한국고전종합DB, 陶谷集 해제

Ⅲ. 創新의 논리와 簡嚴의 文章論

16, 7세기 무렵 조선 문단은 허균과 장유, 이식 등이 道와 文의 괴리를 극복하고, 道와 유리된 문장학 수련의 허점, 文을 무시한 道의 일방적 추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唐宋 古文을 주장하였다. 또한, 의리도덕을 담아 시대에 통용되는 간명한 文道合一의 문장을 구사하는 모범을 제시하여 古文史에 새로운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¹⁶⁾ 그리고 陶谷이 활약했던 17세기 말에서 18세기는 이러한 성과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그 배경이 되는 명말 청초 중국 산문이론에 대한 세부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대표적으로 金昌協은 주자학의 정수를 추구하면서 산문의 문체미를 고도로 이룩하는 것이 가능함을 비평과 창작의 실재로 보여주며¹⁷⁾ 古文論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시켰다. 그는 「농암잡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학론을 펴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唐宋派 이후의 비평에 정통하여 이를 바탕으로 反擬古派 비평을 본격화 하였고¹⁸⁾ 더불어 碑誌文를 중심으로 古文論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古文論에 있어서 이룩한 성과는 陶谷에게 이어졌다.

陶谷은 스승의 古文論을 이어받아 「운양만록」과 「도협총설」을 통해 자신의 문장론과 논설, 비평 등을 저술하여 조선문단에 팽배하였던 擬古文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科文 위주의 문풍¹⁹⁾을 바로 잡으려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

16) 정민, 『朝鮮 後期 古文論 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p.245.

17) 송혁기, 『조선후기 한국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6, p.33.

18)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pp.7~9.

19) 陶谷은 도협총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업을 가장 중요시 여겨 비록 文詞가 무리중에 뛰어난 자라도 과업에 힘써 들어가지 않음이 없어서 지은 것이 오직 表와 策뿐이다[我國人最重科業, 雖文詞超羣者, 無不折入於科業, 所製惟表策而已.]”라고 비판하며 문인들이 科文에만 힘쓰는 현실을 개탄하였으며, “근래에는 과거가 몹시 자주 있어 선비가 짓기만 많이 하

한 陶谷의 반의고적 성향과 개성의 중시, 간섭의 추구 등을 중심으로 그의 문장론이 가진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擬古에 대한 반대와 創新의 추구

명의 전후칠자를 중심으로 한 秦漢古文派는 唐宋古文을 거치지 않고 산문에

고 읽기를 적게하여 마침내는 책을 펴보지도 않고 오로지 전시대 사람이 과거에서 지은 것을 표절해 과명을 얻는 것만 일삼는다[近來科擧甚艱，士子多製而少讀，遂不開卷，專事剽竊前人科作以得科名。]”고 하면서, 빈번한 과거의 실시에 따른 폐해와 당대 문인들의 모방하는 풍토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국에는 과거에 필요한 공부만을 하기 때문에 옥당관이 주자의 『논어혹문』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다른 날 또 입시하였는데, 임금께서 주자집주의 잘못을 지적하시거늘 내가 힘껏 그렇지 않음을 밝히었다. 또 말하기를 “주자께서 정하여 저술한 집주는 일생의 마음과 힘을 다 쏟은 것으로 그 헤아려 거취함은 물을 붓더라도 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자 한 구도 모두 뜻이 있으니 고쳐 바꿀 수 없습니다. 임금께서 만약 『논어혹문』을 보신다면 곧 주설의 심분 마땅함을 아실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어떤 옥당관이 나아가 말하기를 “이 말은 잘못 상달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자가 일찍이 『대학혹문』을 저술했다고는 하나 『논어혹문』은 있지 않습니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옥당관은 반드시 『논어혹문』을 미처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하였더니,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그 말을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 집에서 아무개에게 그 일을 말해주고 웃었다. 또 말하기를 “그 사람이 이미 논어에 혹문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유독 대학에 혹문이 있는 것만 아니 진실로 알 수 없는 일이도다”하였더니, 아무개가 말하기를, “공은 그 까닭을 모르십니까? 근래에 ‘과유의 성균관시 종장공부’라는 것이 문자를 주워 모으는 것이라 자못 『대학혹문』은 읽습니다. 그러나 『논어혹문』은 과거공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버려두고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이 『논어혹문』은 모르고 『대학혹문』 있는것만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어찌 죽히 괴이하겠습니까? 하였다 : 他日又入侍，上頗摘《朱子集註》之誤，余力辨其不然。且言朱子定著《集註》，用盡一生心力，其裁度去就，置水不漏，一字一句，皆有意義，不可移易。聖上若觀《論語或問》，則可知註說之十分的當矣。有一玉堂官進曰：“此言未免誤達矣。朱子嘗著《大學或問》，而未嘗有《論語或問》矣。”余曰：“玉堂官必未及見《論語或問》而有是言矣。”語未畢，其人遽發他言，故不得竟其說，退而說與某人而笑之。且曰：“其人既全昧《論語》之有或問，而獨知《大學》之有或問，誠不可曉矣”。某人曰：“公未曉其故耶。近來科儒之爲監試終場工夫者，爲掇拾文字，頗觀《大學或問》，而《論語或問》，以不切於科工也，棄而不觀，其人之昧於彼而知有此者固也，何足怪哉!”]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서는 先秦兩漢의 산문을, 古詩에서는 漢魏古詩를, 近體詩에서는 盛唐詩를 典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는 唐宋派가 진한산문을 완성태로 보기는 하지만, 진한산문의 경지에 곧바로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唐宋古文을 典範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와 대치된다.

이러한 진한고문과의 논리가 고스란히 구현된 전후칠자의 저작들이 16세기 말 윤근수에 의해 조선에 유입되었고, 이 후 17세기에 널리 확산되어 조선 문단에 큰 영향을 끼치며 秦漢古文의 典範化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진한고문을 그대로 배우려한 당시 조선문단의 분위기는 다음 유몽인의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저는 古人을 배우되 古人에 미치지 못하여 世道가 날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韓愈는 맹자와 장자를 배웠지만 맹자와 장자에 미치지 못하고, 歐陽脩는 韓愈를 배웠으나 韓愈에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 歐陽脩를 배워 壯元을 한 나의 친구 김수현과 같은 사람은 비록 歐陽脩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근원을 소급해 올라가면 실로 맹자, 장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김수현과 맹자·장자와의 거리가 또한 멀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는 맹자와 장자가 배운 바를 곧바로 배우려 할 뿐입니다. 맹자와 장자가 배운바를 배우다가 미치지 못한다면 그래도 맹자와 장자는 될 수 있으니, 도리어 韓愈와 歐陽脩를 배우다가 우리나라의 김수현 같은 자가 되는 것 보다 낫지 않겠습니까?²⁰⁾

즉, 유몽인의 주장은 秦漢古文을 배우기 위해서는 秦漢古文을 바로 배워야

20) 柳夢寅, 「答成察訪以敏書」, 『於于集』: 『韓國文集叢刊』 63, 410면. 自以爲學古人, 不及古人, 世道坐是日降。 韓學孟、莊, 不逮孟、莊, 歐學韓, 不逮韓。 今之學歐取壯元者如吾友金壽賢, 雖不及歐, 溯其源, 實出孟、莊。 金之去孟、莊, 不亦遠乎。 中國之小我東, 職此然也。 生之志, 直欲學孟、莊所學者而已。 學孟、莊所學而不逮, 則猶爲孟、莊, 其不愈於學韓、歐不逮而爲東文如壽賢者乎。

지 중간에 唐宋古文을 배우는 것은 완성태에서 멀어진다는 말로 이러한 생각은 당시 문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한문사대가 중 한명인 신희 또한 명의 이반룡과 왕세정의 산문을 창작 텍스트로 삼았으며, 그의 영향으로 문단의 후배들 또한 이반룡과 왕세정을 典範으로 삼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정홍명 · 조익 · 조위한 · 김상헌 등에 의해 전후칠자의 擬古文을 典範으로 삼은 산문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17세기 전반까지 문단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근래 서울의 재주 있는 무리들은 圓點과 治經을 일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작문에만 힘써 別試 등의 과거에 응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작문이란 것이 또 경서에는 근본하지 않으며, 韓愈와 歐陽脩의 理에 가까운 문장 또한 陳言으로 여깁니다. 오로지 사마천의 사기와 장자등의 글에만 종사하여 괴기한 것을 서로 숭상하기 때문에 경전에 대해서는 배우고 외울 겨를이 없어 답장을 대한 듯 까마득히 모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²¹⁾

1636년에 쓰인 택당의 이 글은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서 선진양한의 고문이 크게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택당은 한유와 구양수의 글 뿐만 아니라 경전까지도 등한시 하며 사기와 장자만을 숭상하고, 이를 통해 과거에 응시하는 당시 문단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선진양한의 고문이 당시 문단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대 전·후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唐宋을 거치지 않고 곧장 秦漢을 배우는 것은 古拙의 추구가 지나친 나머지 도에서 벗어나 字句의 모의만을 일삼는 바람에 고인의 기상은 찾아볼 수 없고 말투만 흉내 내는 지경에 이르

21) 李植, 「丙子諭大學諸生榜」, 『澤堂集』: 『韓國文集叢刊』 88, 510면: 京中才俊之流, 則不事圓點治經, 專務作文, 以應別試等科。而其爲文, 又不本於經書, 如韓、歐近理之文, 亦視以陳言。惟從事於馬史、莊子等書, 務以瑰奇相尙, 故其於經傳, 無暇學誦, 至有味然面墻者。

게 되었다.²²⁾ 특히 전한시대의 古文을 그대로 따라 쓴 나머지 당시 사람들은 쉽게 읽을 수 없는 난해함마저 가지게 되었다. 陶谷은 이러한 명나라 문장의 이러한 폐단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자신의 문장론을 개진한다.

陶谷이 명나라 문장이 가진 한계를 지적한 부분을 살펴 보겠다.

시는 성정을 말하고 문장은 도술을 밝히는 것으로 일의 변화를 기록하니, 모두 세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헛되이 지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는 간간히 경물을 읊는 경우가 많아 때때로 한만한 작품을 짓기도 하지만, 문장이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唐宋 이전의 문인들은 비록 성취한 바가 각각 高下와 優劣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남아있는 문집을 살펴보면 부화하고 난삽하거나 긴요하지 않은 문장은 드물다. 그런데 명나라에 이르자 습속이 부화함만을 숭상하고 質實함에 전혀 없어서 문집 가운데 閒漫한 작품이 매우 많아졌다. 나이 60이면 번번이 壽序를 지어 그의 평생을 드러내는데, 말마다 겹친 말이라서 보기에 싫증난다. 심지어 50에도 장수를 기리고자 序를 쓰며, 어떤 사람은 죽은 이를 위하여 追壽文을 짓기까지 한다. 壽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한다. 삶의 반대가 죽음인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수를 비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더욱 가소롭다. 또한 외지의 관리가 되어 타 임지로 자리를 옮기는 자에게 그의 정치적 능력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한결같이 찬미하는 말로써 서를 지어 그를 전송한다. 명나라 사람들의 문집을 보면 노인의 장수를 기리고 관직을 옮기는 것을 축하하는 서가 거의 반을 넘는다. 이러한 종류의 문장을 짓는 일이 어찌 조금이라도 세교에 도움이 되겠는가? 정말로 문장의 폐단이라고 할 수 있다.²³⁾

22) 정 민, 『朝鮮後期 古文論 研究』, 아세아문화사, 1989, pp.26~27.

23)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53면 : 詩以道性情, 文以明道術, 記事變, 皆有所補於世教, 不可以徒作也。然詩則間多吟詠景物, 容或有閒漫之作, 文則何可如此。以故唐宋以前文人, 雖所就各有高下優劣之不同, 考其遺集, 罕有浮雜不緊之文。逮至皇明, 習尚浮華, 全欠質實, 集中閒漫之作甚多。年六十則輒作壽序以稱颺其平生, 語語複出, 見之可

陶谷은 이 글에서 唐宋 이전의 문인들의 글은 浮雜하거나 不緊한 문장이 드문 반면, 명나라 문장은 부화함만을 숭상하고 절실함은 전혀 없어서 한만한 작품이 매우 많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노인의 장수를 기린다거나 관직을 옮기는 것을 축하하는 序를 많이 짓는데, 이러한 글들은 세교에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겹친 말들이 많아서 보기에다 싫증이 난다고 평하고 있다.

곧, 명나라 문장가들은 문장이 세교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부재했음을 陶谷은 지적하고 있다. 기본적인 작법 태도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주자가 『大學』 보망장을 지었는데, 그 글은 순전히 宋代의 文體이고, 上古의 문과 같지 않다. 대개 文은 세대에 따라 강등되기 때문에 주자 같은 亞聖도 억지로 이루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만약 억지로 古文을 흉내 낸다면 이 또한 진실된 도리가 아니다. 이 때문에 주자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근거해 보면 후세의 사람들이 억지로 難澁한 말을 써서 古文을 흉내 내려고 하는 자는 마치 병도 없으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게 되니, 識者가 취할 바가 아님을 알 수 있다.²⁴⁾

위 글에서 陶谷은 문은 시대에 따라 강등되기 때문에 비록 억지로 古文을 흉내 낸다고 할지라도 진실성이 없어 진정한 古文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주자의 글은 완전히 宋代의 문체로 되어 있다. 주자는 『大學』 보망장을 지으

厭。甚至五十，亦稱壽而序之，或有爲死人，作追壽文者。壽者久生之謂也。生之反爲死，死而壽之，有甚意義，尤可笑也。且爲外官，遷移他任者，無論其政治之能否，一例以褒美語作序而送之。閱明人集，壽老人美遷官之序，殆過其半。作此等文，有何一分裨補。眞可謂文之弊也已。

24)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38~439면. 朱子作《大學》補亡章, 其文純是宋人文體, 不類上古. 蓋文以世降, 雖以朱子之亞聖, 有難力致, 而若欲強效古文, 則亦非眞實底道理, 故不爲之耳. 據此則後人之強作杈枒鉤棘語, 欲以效古者, 適足爲無病嘖呻之歸而非識者之所取可知矣.

면서 『大學』의 문체를 그대로 따라 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난삽한 말을 써서 古文을 흉내 내려 할 경우 병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이 진실성은 없고 겉의 형식만을 꾸미기에 급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陶谷은 주자처럼 亞聖의 역량을 가진자도 함부로 고문을 따라쓰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후대의 문장가들이 억지로 말을 만들어가며 古文을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가를 지적한 것이다. 또한 글을 지으면서 자구나 문체를 따라 쓰는 것으로 古文을 흉내내려 하는 태도에 대한 일침을 가하면서 의고파를 비판하고 있다.

陶谷은 후대의 문장들이 부화하고 한만하면서 형식에만 급급하여 진실함을 찾을 수 없는 글이 된 이유가 바로 난삽한 말로 古文을 억지로 흉내내려 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글을 보면 陶谷의 이러한 견해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한인은 일찍이 六經의 글을 모의하지 않았고, 韓愈 또한 일찍이 사마천과 반고의 글을 모의하지 않았다. 歐陽脩와 증공도 일찍이 韓愈의 글을 모의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의격을 썼을 뿐이니, 그 한인이 되고 韓愈가 되며, 歐陽脩가 되고 증공이 됨에는 절로 본색이 있었다. 만약 단지 古文의 자구에 나아가 그대로 모의하기만 하고 감히 스스로 가슴속의 한마디 말도 토해내지 못했다면, 도리어 局澁하고 單薄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광대들이 가면을 쓴 것처럼 참 모습은 사라져버린 형국이니 어찌 숭상할 수 있겠는가?25)

陶谷은 전대의 문장가들이 문장을 모방하지 않고 자기 가슴속에 있는 말을

25)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54면 : 漢人未嘗摹擬六經之文, 昌黎亦未嘗摹擬馬、班之文。歐、曾未嘗摹擬昌黎之文。但用其意格而已, 其爲漢爲韓爲歐爲曾本色自在矣。若只就古文字句, 切切摹擬, 而不敢自吐出胸中一語, 則反成局澁單薄。有似着優人假面, 眞形不存, 何足尙哉。

그대로 써 냈기 때문에 韓愈는 韓愈다울 수 있었고, 歐陽脩가 歐陽脩다울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단지 그 의격만을 취해 문장을 씌으로써 절로 본색을 갖췄으며, 단지 모의만 하고 스스로의 말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걸만 꾸민 것이오, 참된 내면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擬古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陶谷이 무조건 새로운 형식이나 언어를 창조해서 문장을 써야 함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는 모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 아닌 의격을 취하는 대신 남의 자구나 형식을 모방하여 문장안에 스스로 품은 생각은 한 마디도 표현하지는 못하는 행태를 비판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陶谷은 문장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그는 古文을 典範으로 삼되 글을 그대로 본뜨지 않고 격식을 응용하여 본색이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古文의 정신을 이어받아 개성적인 문장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단순히 문장의 수식과 자구를 본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표현을 가미한 創新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古文의 字句를 본뜨기만 하고 흉중의 말을 한마디도 토로하지 못한다면 문장의 실질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陶谷은 擬古에 반대한 것이며, 이 같은 주장을 통해 볼 때 陶谷이 얼마나 자구를 모방하는 태도를 비판하였는지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陶谷이 어떻게 글을 지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하나의 예이다.

글을 짓는 사람은 마땅히 고인의 체제로써 나의 문자를 지어서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하여금 글 지은 사람의 글로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時俗의 비루하고 더러운 습속은 통렬히 제거하면 충분하니, 어찌 만드시 일일이 모의하겠는가? 근래의 公家文字 또한 만드시 피하여 사용치 않을 필요는 없다. 위로는 秦漢에서부터 아래로는 韓歐에 이르기까지 時俗에서 의례적으로 쓰는 문자는 모두 피하지 않았으니 모두 檢看할 만하다. 내가 일찍이 다른 사람의 墓文을 지어주면서 ‘一等’이란 말을 사용하였는데 대개 ‘一等’이란 것은 우리나라 과거시험장에서 등수를

일컫는 말이다. 근래에 옛 것을 숭상하는 자가 보더니 크게 놀라면서
힘으로 여겼다. 내가 韓愈의 「鄭羣誌」²⁶⁾를 펼쳐 ‘上等’이라고 한 두
글자를 보여주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上等’은 이미 韓愈의 문자 중에
있으니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쓸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 고루하고 융
통성이 없음이 이와 같이 웃을만하다. ²⁷⁾

陶谷은 글을 지음에 있어 고인의 체재로 나의 문자를 지을 것을 요구한다.
즉, 典範의 테두리 내에서 글을 쓰되, 그 표현은 자기만의 개성을 담아야 한다
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 결과 글 읽는 사람이 읽고 이것이 누구의 글인지
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글이며,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옛 글
에서 상고하여 일일이 모의한다면 개성이 없는 글이라 평하고 있다. 그러면서
陶谷이 韓愈의 「鄭羣誌」에 나오는 ‘上等’이란 말 대신 우리나라에서 쓰는
‘一等’이란 말로 바꾸어 썼더니, 옛 것을 숭상하던 자가 트집을 잡았다는 일화
를 이야기 하면서 자신만의 표현 대신 무조건 옛글을 모의하려는 擬古派에 대
해 비판과 일상에서 쓰는 단어하나까지도 일일이 전고를 찾아서 모의하려는
경직성에 대해 질책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陶谷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올바른 글쓰기는 자구하나하나 일일이
전고를 찾아 모의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의 체재로 나만의 문자를 지어 사람들
이 누가 보아도 내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선진양한의 古文을 따르면서도 創新과 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陶谷의

26) 「鄭羣誌」 : 「唐故朝散大夫尙書庫部郎中鄭君墓誌銘」 “君諱羣, 字弘之, 世爲滎陽人. 其祖
於元魏時, 有假封襄城公者, 子孫因稱以自別. 曾祖匡時, 晉州霍邑令. 祖千尋, 彭州九隴丞. 父迪,
鄂州唐年令, 娶河南獨孤氏女, 生二子, 君其季也. 以進士選, 吏部考功所試判爲上等, 授正字……

27)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54면 : 作文者當以古人之體裁,
作吾之文字, 使人之觀者知其爲作文人之文. 而俗下庸鄙之習則痛去之足矣, 何必一一摹擬哉.
近來公家文字, 亦不必避而不用也. 上自秦、漢, 下至韓、歐, 時俗例用之文字, 皆不避焉, 俱可
檢看也. 余曾作人墓文, 用一等語, 盖一等者, 我國科場等第之稱也, 近來尙古者見之, 大驚以爲
疵. 余披昌黎〈鄭羣誌〉上等二字以示之, 其人曰 : “上等既有昌黎文字, 可用, 此則不可用.” 其
膠固可笑如此.

견해를 살필 수 있다.

2. 典範으로서의 六經과 제자서의 수용

1) 擬古派에 대한 비판을 통해 본 六經의 중요성

陶谷은 擬古派가 고인이 썼던 字句를 모의하는 폐단을 가진 것 이외에도 無理念性에 대한 비판도 가한다. 陶谷이 말하는 이념은 바로 유가의 이념이면서, 주자주의 바로 그것이다.

그는 평생 주자를 신봉했고, 유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가 얼마나 주자주의적 사고를 유지하려 노력했는지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젊어서 최창대와 翰苑의 동료였었다. 어느 날 창대가 “朱子の 학문은 취할 만한게 없다”고 함부로 말했다. 내가 그 말에 깜짝 놀라, “그대는 감히 이런 악담을 하고도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하고 꾸짖자 창대는 “그대 역시 세속의 논의에 몰들었구나. 주자의 「大學問答」을 한번 보게. 다만 商人들의 語氣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자신을 함양한 사람이 쓴 글이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에 더욱 놀라 다시는 그와 말하지 않았다.²⁸⁾

위의 일화는 陶谷이 韓원의 동료인 최창대가 주자의 학문에 대해 폄하하자

28)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42면 余少時, 與崔昌大爲翰苑同僚。昌大肆言: “朱子學問之無可取。”余極駭責曰: “君乃敢發此惡口, 獨不畏上天乎。”昌大笑曰: “君亦泥於世俗之論矣。君試看朱子〈太極問答〉。直是賈豎辭氣, 豈粗有涵養之人所可爲者乎,” 余益駭, 不復與言。

다시는 그와 상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陶谷이 주자주의자적 면모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문인들이 주자주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사회는 주자학에 대한 회의가 남인과 소론 사이에 팽배하였다. 특히 허목의 경우 ‘문학을 논하는 사람은 程朱氏의 문장만 배워서 그렇게 쓰지 않으면 유자의 理勝之文이 아니라고 여기고 六經古文은 한낱 稀闊한 陳言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주자 성리학 그 주자 성리학만을 존송하는 노론을 비판하였다. 즉, 허목은 六經古文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육경을 근거로 주자 성리학 일색의 풍토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반해 陶谷은 육경사상이 곧 주자 성리학이라 주장하면서 자신이 가진 주자학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고 이를 작품에 구현하기 위한 방도로 六經을 제시했다. 결국 陶谷이 내세운 육경의 논리는 선진을 주장한 명 의고파와 이들을 그대로 따르려는 국내 문인들에 대한 비판 논리로 작용하는 것과 함께 반주자주의 경향을 지닌 이들의 육경 논리를 견제하는 작용까지도 수행한다.²⁹⁾

이제 구체적으로 陶谷이 문장 작법의 典範으로서 六經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聖人の 도리는 六經에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모두 고심하여 비록 사장의 말단을 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구할 수 없다. 대개 문장에 理가 없으면 문장이라 할 수 없다. 그 詞와 理를 구비하고자 한다면 성인의 경전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이유로 兩漢의 여러분들로부터 唐宋팔대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술에 근본하여 문장을 지었던 것이다. 소씨 부자는 비록 종횡가의 기습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그 원천은 六經에서 나왔으니 천고의 문장의 정맥이 실로 여기에 있다.

29) 정순희,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과 문학』, 한국문화사, 2004, p39

皇明의 王世貞 · 李攀龍 등 여러 사람은 오로지 선진제자를 배워 韓愈 · 歐陽脩의 경지를 넘어 左丘明 · 司馬遷과 나란히 달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문장이 六經에 근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아순하지 못하고 이치는 부끄러워 曾鞏 · 王安石에 비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좌구명과 사마천에 있어서라.

일찍이 명나라 사람들이 입만 열면 번번히 선진을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으니, 육경은 유독 선진이 아니란 말인가? 술에 비유하면, 六經은 진한 술이고 선진제자는 묽은 술이다. 대저 이미 선진에 전력했다면 어찌 진한 술을 버리고 묽은 술만 마신단 말인가. 이는 공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⁰⁾

말머리에 陶谷은 단도직입적으로 성인의 도리가 이미 六經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서는 다른 것을 구할 수 없다고 六經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한의 문장가부터 唐宋八大家까지 모두 경술에 근본하여 문장을 지었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소씨 부자가 縱橫家의 습속을 가졌지만 그 근본이 六經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六經에 근본하기만 한다면 비록 이단적 성향을 가졌더라도 용인하는 사유를 펴고 있다.

그러나 명나라 전후 칠자들은 전적으로 선진제자를 배워 그 문장이 六經에 근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雅馴하지 않고 이치는 부끄럽다고 하면서 擬古派가 六經을 典範으로 삼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擬古派들이 六經을 버리고 선진제자만을 취하는 것을 진한 술을 버리고 묽은 술만 마시는

30) 李宜顯, 「雲陽漫錄」,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28면: 聖人之道, 具在六經。固學者所共刳心, 而雖欲爲詞章之末, 外此亦不可他求。蓋文而無理, 不可謂之文。欲其詞理俱備, 捨聖經何適矣。是以上自兩漢諸公, 以至唐宋八大家, 皆本經術爲文。蘇氏父子雖未能脫縱橫氣習, 其源則亦出六經, 千古文章正脉, 實在於此。皇明王、李諸人, 專學先秦諸子, 意欲跨韓、歐而上之, 與左、馬並驅。而其文不本於經, 故語不馴而理則媿, 比之曾、王, 猶不及, 況左、馬乎。嘗怪明人開口, 便說先秦, 六經獨非先秦乎。譬如酒醴, 六經醇也, 先秦諸子醜也。夫既專力於先秦, 則又何以捨其醇而啜其醜也。可謂枉費工夫矣。

것에 비유하면서, 擬古派들이 공부를 헛되이 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陶谷이 이처럼 문장창작의 典範으로 六經을 제시한 근거는 바로 理에 있다. 그는 “대개 문장에 理가 없으면 문장이라 할 수 없다. 그 詞와 理를 구비하고자 한다면 성인의 경전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했다. 여기서 詞가 형식적인 표현이나 수사법을 의미한다면, 理는 내용적 주제나 사상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理는 유가의 가치관과 이념이며, 성인이 밝힌 바이자 육경안에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에서 중요한 理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六經을 典範으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陶谷의 주장인 것이다.

六經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는 다음 글에서도 나타난다.

李夢陽에 이르러 비로소 선진제자를 준칙으로 삼아 刻意 · 摹倣하기 시작했다. 그 才力은 본디 雄鷲하였으나 그 성취는 자못 雅馴한데서 어긋났다. 왕엄주 · 이창명 · 왕태함 등이 응경 · 만력 연간에 일어나 한결같이 學古를 자신들의 임무로 삼았다. 창명은 더욱 槎牙險崛을 위주로 하여, 그의 작품을 읽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태함 역시 그러하다. 엄주는 견해가 비록 같으나 그 재주가 알차고 컸으니 다른 사람에 비해 최고였다. 그러므로 그의 문장에는 또한 자못 한 두 군데 좋아할 만한 곳이 있다. 그러나 韓愈 · 歐陽脩의 정맥은 아니고, 본디 다른 부류이다. 대저 이 몇분들의 문장은 선진제자와 『左傳』 · 『國語』 · 『史記』에 전적으로 힘을 쏟았고, 六經에 근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식견이 취할 것이 없다. 그 序와 記는 기이함이 없지는 않으나, 끝내 화려하기만 하고 알맹이가 없는 데로 귀착됨을 면치 못한다.

31)

31) 李宜顯, 「雲陽漫錄」,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28면 : 至李空同, 始以先秦諸子爲準則, 刻意摹倣. 其才力固雄鷲, 而所就頗乖雅馴. 及夫王弼州、李滄溟、汪太函輩起於隆萬間, 一以學古自命. 滄溟尤以槎牙險崛爲主, 讀之, 絕無意味, 太函亦然. 弼州所見雖同, 其才具實大, 比諸子爲最. 故其文亦稱頗有一二可喜處. 然非韓、歐正派, 自是別流也. 大抵此數公文章, 專力於先秦諸子、《左國》、《史記》, 而不本於六經, 故識見無可取. 其序記文字, 非不新

이 글은 전후칠자인 이몽양 · 왕세정 · 이반룡 · 왕도곤의 문장에 대한 논평이다. 이몽양은 才力은 뛰어났으나 성취는 아순하지 못했고, 이반룡과 왕도곤은 모두 槎牙險崛을 위주로 한 나머지 작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왕세정의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면 가장 훌륭하지만 정맥이 아닌 별류이며, 이러한 전·칠자의 저작들은 중국에 ‘華而不實’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평하였다.

이들에 대해 이토록 낮은 평가를 한 이유는 그들이 선진제자와 『左傳』 · 『國語』 · 『史記』에만 힘을 쏟았을 뿐 陶谷이 유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시한 六經에 근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후칠자가 六經을 典範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陶谷은 식견의 부재 때문이라고 하였다. 식견은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작가가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이다. 그런데 이 식견의 부재가 이념이 드러나지 않는 글을 쓰는 이유라고 평한 점은 그가 이념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를 짐작케 한다.³²⁾

즉, 陶谷의 주장은 擬古派의 식견이 불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六經을 典範으로 설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글에 ‘理’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理’는 곧 글의 주제를 말하는 것이니 주제가 없는 문장은 결코 문장이라 부를 수 없다. 따라서 陶谷이 말하고자 한 바는 ‘理’를 구비한 六經을 글쓰기의 典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체현하지 못한 擬古派를 비판한 것이다.

2) 諸子書を 통한 文氣의 함양

앞서 보았다시피 陶谷은 다양한 분야의 저작들을 많이 읽었으며, 장자서를 읽고 쓴 작품을 농암에게 보여주는 등 실제적으로 자신의 문장저술에 제자서

奇, 而終不免爲華而不實之歸。

32) 민복기, 「陶谷 李宜顯의 反擬古의 散文批評」, 『동양한문학연구』 제 25집, 2007, p.111.

를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陶谷은 六經을 문장 작법의 典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여러 諸子書를 충분히 多讀하여 文氣涵養에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선진제자의 학술이 비록 불순하나 그 식견이 높고 필력도 굳건하니 대개 융성한 고풍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을 열면 절로 이와 같았으니 훗날 여러 사람들이 미칠바가 아니었다. 문장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六經에 근본해야 하지만 사방으로 참고하여 文氣를 돕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그 중에서 이치에 어긋나고 의리를 해치는 곳을 알아서 버리고 취하면 된다.³³⁾

陶谷은 문장을 짓는 사람들은 마땅히 六經을 근본으로 해야 하지만 선진제자의 문장을 참고하여 ‘文氣’를 돕는 것도 무방하다고 했다. 앞서 擬古派들을 비판하는 부분에서는 六經을 진한 술로, 선진의 글을 묶은 술로 비유하면서 선진에 몰두하는 것이 헛된 공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선진제자를 통해 문기를 돕는 것도 해롭지 않다고 하니 언뜻 앞의 주장과 어긋나 보인다. 그러나 陶谷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擬古派 문인들이 六經에 근본하지 않고서 무조건 선진제자만을 취하여 모방만을 일삼는 태도였지 선진제자들의 문장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다. 즉, 陶谷은 문장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六經의 의취를 본받아 ‘詞’와 ‘理’를 모두 갖추고, 여기에 제자서의 문장 형식이나 기교 등의 장점을 취하여 문기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陶谷은 이처럼 선진제자서들을 폭넓게 읽는 자세를 통해 文氣를 기를 수 있다는 개방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장에 경도되어 있었

33) 李宜顯, 「雲陽漫錄」,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28면: 先秦諸子學術, 雖不醇, 其識見儘高, 筆力又健, 蓋稟隆古風氣。故開口, 自然如此, 要非以後諸人所及也。爲文章者, 雖當本之六經, 亦不妨旁參以助文氣。但其中背理害義處, 則知所去取可也。

다.

노장은 이단 가운데 뛰어난 것이다. 노자는 간략하고도 깊고 장자는 해박하면서 사변적이다. 우리 도에 비한다면 『도덕경』은 『논어』와 같고 『남화경』은 『맹자』와 같다. 장자의 「제물론」은 그들 도의 대치를 자세히 논한 것이니, 역시 맹자의 ‘호연장’과 같고 「천하편」은 제자들을 두루 서술해서 老聃까지 언급했으니 역시 맹자의 말편에서 도통의 전수를 언급한 것과 같다. 비록 도의 是非와 邪正의 구별이 있지만 글을 지어 말을 세운 종지는 대략 서로 비슷하다.³⁴⁾

노자의 글은 은미하고 심오해서 여타의 제자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나는 젊었을 때 노자의 글을 매우 좋아해서 연구하고 모색하는데 많은 힘을 들였으나 의미가 황홀해서 끝내 잡아낼 수 없었다. 마침내 멈추고 장자서를 읽었는데, 장자의 글은 노자에 대한 주였다. 옛날에 ‘노자는 용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대해 말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노자라는 인물이 용같은 뿐만 아니라 그 문장 역시 용과 같다고 여긴다. 또한 『楞嚴經』과 같은 류로 모두 천하의 지극한 문장이다.³⁵⁾

비록 노장에 대해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으나 『道德經』를 『論語』에, 『남화경』을 『맹자』에 비유하고 『장자』의 「제물론」을 『맹자』

34) 李宜顯, 「雲陽漫錄」,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28면: 老、莊, 異端之雄也。老簡而深, 莊博而辨。比之吾道, 《道德經》如《論語》, 《南華經》如《孟子》。莊之〈齊物論〉, 極論其道之大致, 亦如《孟子》之浩然章, 〈天下〉篇, 歷叙諸子, 以及於老聃, 亦如《孟子》末篇論道統之傳。雖其道有是非邪正之別, 著書立言之宗旨則略相似。

35)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46면: 老子之文, 玄微奧深, 非諸子所可及。余少時甚喜之, 頗費研索, 而意旨惚恍, 終莫可摸捉。遂輟而讀莊子, 莊文, 老子之註脚也。古云: “老子猶龍。” 此以人言也。余謂不但其人猶龍, 其文亦猶龍。殆與《楞嚴經》相類, 俱是天下之至文也。

의 호연장에, 「천하」편을 『맹자』의 도통전수 내용에 비길만 하다고 매우 칭찬하였다. 특히 노자의 글은 은미하고 심오함이 여타의 제자들은 이를 수 없는 경지라고 칭송하면서 인물 뿐만 아니라 문장 또한 용에 비길 수 있을 만큼 훌륭하다고 추켜세우고 있다. 하지만 陶谷은 일관되게 노장의 사상에 대한 평가는 피하고 문장의 우수함만 언급한채 끝맺고 있다.

다음은 陶谷이 제자서인 『莊子』의 글에 대해 평한 것으로 제자서를 文氣 함양의 주요한 방도로 설정한 도곡의 견해가 더욱 드러나는 부분이다.

『南華經』에서 읽은 것은 몇 편이나? 또 어떤 편을 얼마나 읽었고 어떤 편은 얼마나 읽었는지 알려다오. 「齊物」, 「逍遙」, 「養生」, 「人間世」, 「秋水」, 「天運」, 「至樂」, 「山木」, 「達生」 등 편은 모두 많이 읽어야 한다. 그 가운데 「齊物」편의 南郭子綦 이야기부터 物化 대목에 이르는 한 편은 한 氣를 토해서 이룬 것이어서 脈絡이 일관되고 法度가 또한 森然하다. 글을 엮어가는 機軸은 이것에 익숙하면 절로 깨달을 수 있으니 가장 많이 읽어야 하고, 「秋水」편은 그 다음이다. 나머지 여러 편들 가운데에서 人情과 物態를 모사한 부분도 매우 깊어 오묘한 지경에 들어간 것이 많으니 이것들도 뜻을 두고 읽지 않을 수 없다.³⁶⁾

이 글은 陶谷이 아들 보문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여기서 陶谷은 아들이 장자를 얼마만큼 읽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물으면서 각 편에 대한 長處를 언급하고 많이 읽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볼 때 陶谷은 제자서를 작문 활

36) 李宜顯, 「與善文」,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526면 : 《南華》讀得幾篇, 而某篇讀幾許, 某篇讀幾許, 示之。〈齊物〉、〈逍遙〉、〈養生〉、〈人間世〉、〈秋水〉、〈天運〉、〈至樂〉、〈山木〉、〈達生〉等篇, 俱不可不多讀。其中〈齊物論〉自南郭子綦, 至物化一篇, 一氣呵成, 脈絡貫珠, 法度又森然。綴文機軸, 熟此可自悟, 最堪多讀, 〈秋水〉次之。其餘諸篇中摸寫人情物態, 多刻深入妙, 此等處, 不可不着意看讀。

등의 필수 요소로 여겼음이 분명하다.³⁷⁾

陶谷은 노장 이외에도 선진제자들의 문장에 대한 비평 또한 생략하지 않았다.

『荀子』는 性惡 等篇을 제외하고는 의론이 순정하고 격언과 명리가 많아서 제자 중에 가장 도에 가깝다. 또 문사가 풍부하고 넉넉하므로 많이 읽어 힘을 얻는다면 마땅히 세상에서 높은 문장이 될 것이다. 한 창려의 문장이 모두 순자의 문장에서 나왔다.³⁸⁾

管子の 책은 세상을 경영하는 위대한 글이다. 문장은 구슬을 연결시키고 수은을 쏟아놓은 것과 같아 신기한 기교를 비할 바 없다. 또 붓끝을 고무시키는 묘미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라서 그 글을 읽을 때면 늘 다 읽어버릴까 걱정스러울 정도다. ³⁹⁾

안자의 책은 이름이 『안자춘추』이니, 군주를 풍간하는 글을 많이 실었다. 의론이 순수하고 정성스러우며, 문자도 전아하니 또한 그 사람 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⁴⁰⁾

墨子の 글은 혼후하고 넓고, 鄧子の 글은 간략하고 질박하다. 文子の

37) 이에 대해 정순희는 『도곡 이의현의 고문론과 문학』에서 ‘李宜顯이 六經을 내세웠던 것과 주자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도처에 강조하였던 것은 자신의 이러한 이단에 대한 경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보호막이었던게 분명하다’라고 추정하기까지 하였다.

38)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46면 : 《荀子》一書, 除〈性惡〉等篇外, 議論純正, 多格言名理, 在諸子中, 最爲近道. 又其文辭豐暢贍厚, 若多讀而得力, 則當爲高世文章. 昌黎之文, 全出於此.

39)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46면 : 管子之書, 是經世大文字, 而文如珠迸永瀉, 奇巧無比, 筆端鼓舞之妙. 又有言不可形者, 讀之, 常恐易盡.

40)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46면 : 晏子之書, 名曰《晏子春秋》, 多載諷諫其君之語. 議論純慤而文字典雅, 亦可想見其爲人矣.

글은 절실하고 깊고, 尹文子의 글은 논변적이고 박학하다. 關尹子의 글은 기이하고 예스럽고, 鬻子의 글은 별로 새로운 말이 없고 문자 역시 별로 변창한 것 같지 않다. 鶡冠子는 비록 후인의 위작이라 일컬어지기는 하지만 사이사이 기이한 말이 많다. 子華子의 글에서는 안자를 일컫는 부분이 많으므로 어찌면 안자와 같은 시대 사람 같다. 그러나 序에서는 조간자의 가신이라고 불렀는데,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안자 당시의 사람은 아닌 듯 하다. 문장은 상당히 운택하고 뛰어나다. 亢倉子는 곧 장주가 일컬었던 老聃之役의 유상초라는 자인데, 그의 문장 역시 기이하다. 鬼谷子는 전국시대 책략가의 선구자로 노씨의 후예인데, 그의 문장은 크고 종횡하여 본말을 알 수가 없다.⁴¹⁾

韓非子の 「說難」 ・ 「孤憤」 등의 편은 귀곡의 문체를 썼으나 약간 변하여 인정에 간절하고 일의 기미에 깊으며 문장 또한 매우 빛나서 전절이 많으니 매우 많이 읽을만 하다. 呂覽의 문장은 깊고 깊으며 요묘하나 이는 자작이 아니다. 천금을 매달아 사방의 인사에게 구하여 각각 본 바의 논저 중에서 기이한 문장과 뛰어난 어구를 모아 함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절로 볼만한 것이다.⁴²⁾

陶谷은 우리에게 익숙한 순자, 목자 이외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선진제자들의 문장에 대한 평을 일일이 진행하고 그 長短處를 논하고 있다. 특히 조선 조 문인들이 문장에 있어 祖宗으로 여겼던 韓愈의 글이 순자의 문장에서 나왔

41)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46면 : 墨子之文渾浩, 鄧子之文簡質, 文子之文切深, 尹文子之文辨博, 關尹子之文奇古, 鬻子之文, 別無新語, 文字亦似不甚暢茂, 鶡冠子雖稱後人僞作, 然間多奇語, 子華子之文, 多稱晏子, 豈晏子一時人耶, 序稱爲趙簡子家臣, 若然則似非晏子時人, 文頗腴雋. 亢倉子, 卽莊周所稱老聃之役庚桑楚者也, 其文亦奇. 鬼谷子卽戰國機變之先鞭, 而老氏之餘裔也, 其文俊偉縱橫, 莫可端倪.

42)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47면 : 《韓非》〈說難〉、〈孤憤〉等篇, 用鬼谷而稍變, 切於人情, 深於事機, 文亦腴蔚多轉折, 絕堪多讀. 呂覽之文, 沉深而要妙, 此非不韋自作. 懸千金以求四方人士, 各以所見論著, 哀聚奇章雋語, 合爲一書, 故自可觀.

다는 말은 제자서라 할지라도 잘 익혀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면 문장력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문기함양에 제자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강조한 것이다.

또한 陶谷은 도협총설에서 제자서 이외에 선진이상의 책을 언급하면서 ‘옛 전적에 博學하는 자가 채집하는 것이 될 만하고, 다양한 글맛을 보기 위한 자료로 삼기에 충분하다’⁴³⁾고 강조하였다. 陶谷이 이처럼 여러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서량이 엄청났음⁴⁴⁾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앞서 노장에 대한 평에서도 드러났듯이 陶谷이 제자들의 사상이나

43)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47면: 諸子外先秦以上書, 《家語》、《國語》、《戰國策》、《黃帝素問》、《陰符經》、《黃石公素書》、《三略》、《太公六韜》、《三墳書》、《越絕書》、《汲冢周書》、《竹書紀年》、《穆天子傳》、《漢魏則京房易傳》、《焦贛易林》、陸賈《新語》、賈誼《新書》、劉向《新序說苑》、淮南王《安鴻烈解》、東方朔《神異經十洲記》、孔鮒《孔叢子小爾雅》、桓寬《鹽鐵論》、申培《詩說》、韓嬰《韓詩外傳》、戴德大《戴禮記》、董仲舒《春秋繁露》、趙曄《吳越春秋》、揚雄《太玄經》·《法言》·《方言》、劉歆《西京雜記》、班固《白虎通》、漢武《內傳》、伶玄《飛燕外傳》、魏伯《陽參同契》、王符《潛夫論》·《黃憲外史》、荀悅中《鑒郭憲洞冥記》、應劭《俗通》、桑欽《水經》、石中《星經》、王充《論衡》、劉熙《釋名》、馬融《忠經》、蔡邕《獨斷》、諸葛亮《心書》、亡名氏《雜事秘》、辛三輔《黃圖》、王粲《英雄記》、徐幹《中論》、摠五十餘種。司馬遷《史記》、班固《漢書》, 別爲記事之書, 不列於此。諸書各有純駁眞贗之殊, 而要可爲博古者之所採緝, 余亦槩皆循覽一二次, 欲略加去就, 作爲一書, 以資榘梨一味而未及成書, 今老倦, 不能爲也。

44) 陶谷의 「紀年錄」에 의거해 볼 때, 성품이 책 보기를 좋아하여 관례를 올리기 전 집안에 있던 책을 모두 읽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협총설 곳곳에 多讀과 精讀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인다.(도협총설 14칙[十三經, 一曰《周禮》、漢鄭玄註、二曰《周易》、魏王弼註、三曰《毛詩》、鄭玄註、四曰《尚書》、漢孔安國註、五曰《論語》、魏何晏註、六曰《孟子》、漢趙岐註、七曰《春秋左傳》、晉杜預註、八曰《春秋公羊傳》、漢何休註、九曰《春秋穀梁傳》、晉范甯註、十曰《禮記》、鄭玄註、十一曰《儀禮》、鄭玄註、十二曰《爾雅》、晉郭璞註、十三曰《孝經》、唐玄宗註。自朱子作傳註以後, 諸說盡廢, 以今見之, 舊註雖多疎謬踳駁, 而去古爲近, 其所解釋, 亦頗有經據要, 不可一切掃去之也。余家藏此書, 讀經書時, 間取而參驗之, 益信朱子註說之顛撲不破, 而亦可以資多聞而廣知見矣。], 26칙[爲學之要, 在於讀書致精, 若不甚究隲, 草草讀過, 雖讀至千遍, 有何效益, 朱子語類, 論讀書法甚詳, 可考而見也。少時, 見農巖讀書, 引聲留音, 反復永歎, 以是讀一遍甚久, 可見其讀書之精, 如是而後, 可責其得力矣。], 78칙[經書爲士之本根, 若多讀得力, 則上可爲學問, 中可爲文章, 下亦不失爲場屋高手。] 등)

철학적인 면이 아니라 오로지 문장에 대한 비평으로 채워져 있음을 볼 때 사
상가보다는 문장가로서 행세하려한 도곡의 자취를 읽을 수 있다.

3. ‘簡嚴’의 추구

앞서 논의에서 살펴본바 陶谷은 명나라의 문장에 대해 ‘華而不實’, 字句만을
모의하는 태도, 理의 부재, 진실성의 결여, 쓸데없는 수식으로 길어진 문장 등
이라 비판하면서 그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簡嚴’이다.

간엄은 한문 문장 작법의 중요한 기본 원리로 서술대상의 초점을 부각시키
기 위해 추구되었다. 이는 동일한 어구의 반복을 피하면서 사소하고 번다한
서술을 지양하고 중심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구현되었다. 예
를 들어 구양수는 친구 尹洙를 위해 지은 「尹師魯墓誌銘」에서 그의 문학적 재
능에 대해서는 ‘簡而有法’이라는 4글자로 표현하였고, 학식에 대해서는 ‘通知古
今’이라 표현하였다. 언론에 대해서는 ‘是是非非，無窮盡道理乃已，不爲苟止而
妄隨’라고만 서술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무 간략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
러나 구양수는 ‘천하의 선비로서 그를 아는 사람이든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든 윤사로의 문학과 의론과 재능이 대단함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였
다. 즉,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구태여 세세하게 나열하기 보다
는 간략하고 명료한 키워드를 설정하여 윤사로의 일생을 보여주는 방법을 택
한 것이다.

또한 구양수는 이후 「薛塾墓表」에서 “내가 옛날의 소위 현인군자와 공신
열사의 명문이 후세에 잘 알려지게 된 까닭을 헤아려 보니, 요컨대 그 문장이
간결했기 때문이다.”⁴⁵⁾고 하면서 망자의 행적을 세세히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후세인에게 잊혀지거나 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구양수가 말한 ‘簡而有法’이라는 것은 윤수가 가지고 있었던 문학적 재능이 뛰어남을 대변해 주는 단어이면서, 좋은 문장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였던 것으로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簡嚴과 같은 의미이다.

한편, 간엄에 대해 農巖 金昌協은 “古人之簡은 篇法에 簡했고, 明人之簡은 字句에 簡하며, 古人之詳은 大體에 詳하고 明人之詳은 小事에 詳하다. 그러므로 구양공이 왕단과 범중엄 두 문정공의 신도비문을 지을 때 그 문장은 2천자가 되지 않았지만, 재상이 되었을 때의 사업과 평생의 大節을 거의 남김없이 모사해 내었다. 왕엄주는 장사꾼이나 부녀자의 誌와 傳까지 지었는데, 그 사람이 자질구레하여 쓸 만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 걸핏하면 수백 수천 언이나 되었으니 여기서 그 工 · 拙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다.”⁴⁶⁾라고 하면서 고인의 문장과 명나라 문장의 工拙의 차이가 ‘簡’에서 비롯됨을 말하였고,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구양공이 지은 신도비명과 왕엄주의 글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농암이 말한 편법에서의 간략함은 엄정한 기준에 의해 선택된 소재를 가지고 각 단락에 배치하여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농암은 ‘簡嚴’이 문장의 공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하면서, 비지류를 매개로 간엄한 문장에 대해 논의를 편 것이다.

계곡 장유의 경우 “옛 사람은 식견이 높아 필력이 간엄하였기 때문에 간략하게 쓰면서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였다. 가령 『한서』에서 高祖를 일컬은 말을 보면, 처음에는 ‘관대하고 인자하여 사람을 사랑하였으며, 뜻이 활달하여 항상 큰 법도가 있었다[寬仁愛人, 意豁如也, 常有大度]’고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문학 수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천성적으로 분명하고 통달하였으며 계책을

45) 歐陽脩, 「薛塾墓表」, 『歐陽脩全集』: 予考古所謂賢人君子功臣烈士之所以銘見於後世者, 其言簡而若。

46) 金昌協, 「雜識」, 『農巖集』: 『韓國文集叢刊』162, 374면: 古人之簡, 簡於篇法, 明人之簡, 簡於字句。古人之詳, 詳於大體, 明人之詳, 詳於小事。故歐陽公作王、范二文正碑, 其文不滿二千言, 而其作相事業與平生大節, 摸寫殆盡。兪州作商販婦女誌傳, 其人瑣瑣無足記, 而其文動累百千言, 此可見工拙之辨也。

좋아하며 사람들 말을 잘 들었다[不修文學, 而性明達, 好謀能聽]’고 하였다. 이렇게 몇 마디 말 밖에 하지 않았으나 고조의 사람됨을 형용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보탬 것이 없다할 수 있다. 만약 후대의 문인들에게 이를 표현하게 해 본다면 또 얼마나 많은 어휘를 허비할지 모르겠다. 대개 식견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⁴⁷⁾라고 하면서 짧은 어구이지만 그 안에 사람의 됨됨이를 모두 담아내는 높은 필력을 간엄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이는 모두 높은 식견에서 연유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구공의 소설을 보면 서남쪽의 夷人이 매성유의 雪詩를 베어다 짜서 넣었다는 일화가 나오는데, 성유의 묘지를 지을 때는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양귀산의 행장에는 ‘고려 국왕이 귀산 선생은 지금 어느 곳에 계시느냐고 물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호문정이 그의 묘지를 지을 때에는 역시 이 일을 기록하지 않고 말하기를 ‘蠻夷에게 성명이 알려진 것쯤이야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고인이 金石文字를 지을 때의 근엄함이 이와 같았다.”⁴⁸⁾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謹嚴’한 태도는 ‘簡嚴’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한 사람의 일생을 기록하고 되짚어 볼 때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모두 기록하여 문장을 번잡하게 하기보다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소재를 선택하여 글을 구성했던 옛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장유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하듯 간엄한 문장을 쓰기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중요성은 시대와 국가를 넘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陶谷의 문장론에서도

47) 張維, 「谿谷漫筆」, 『谿谷集』: 『韓國文集叢刊』92, 595면: 古人識高, 筆力簡嚴, 詞約而意盡。如《漢書》稱述高祖, 始曰: “寬仁愛人意豁如也, 常有大度。”, 終曰: “不修文學而性明達好謀能聽。”, 此僅數語耳, 形容高祖爲人, 無以復加。使後之文人爲之, 不知更費幾何語也。蓋唯其識高, 故能有此筆力也。

48) 張維, 「谿谷漫筆」, 『谿谷集』: 『韓國文集叢刊』92, 599면: 歐公小說, 載西南夷人以梅聖俞 雪詩織布事, 而聖俞墓志不記其事。楊龜山行狀, 有高麗國王問龜山先生今在何處之語, 而胡文定作墓志, 亦不書其事曰: “姓名爲蠻夷所知, 豈足道哉。” 古人爲金石文字謹嚴如此。

찾아볼 수 있다.

古文의 법도는 매우 簡嚴하여 쓸데없는 글자나 남는 句가 전혀 없다. 아래로 唐宋의 韓愈 · 歐陽脩 · 蘇軾 · 曾鞏 등 여러 사람들에 이르러서도 모두 그렇지 않음이 없다. 또 韓愈 · 柳宗元 이하 八家들은 비록 한결같이 法古에 뜻을 두었지만, 단지 意致와 法度만을 취했을 뿐, 문자는 전혀 답습하지 않았으니, 그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 않아서이다. 명나라의 李攀龍 · 王世貞 등 여러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韓愈 · 歐陽脩를 높이 뛰어넘어 바로 左丘明 · 司馬遷과 나란히 달린다”라고 했으나 造語가 쓸데없이 긴 것이 많아 넘치고 남는 字句를 이루 다 지적할 수 없다. 또 諸子와 左丘明 · 司馬遷의 문자를 잡다하게 취하여 겹겹이 서로 거듭되고, 韓愈 · 歐陽脩 등 여러 사람들이 이미 버린 나머지를 주우면서도 뽑내며 스스로 칭찬하였으니 비루하다고 말할 만하다. 49)

陶谷은 위의 글에서 고문의 법도를 간엄이라 제시하면서 이는 ‘결코 쓸데없는 글자나 남는 구가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唐宋古文派와 明代 古文家들을 평가하였다. 唐宋古文家들이 의취와 법도를 취했을 뿐 문자는 답습하지 않았다고 평한 것은 이들이 古文이 가진 簡嚴의 법도를 취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명대의 古文家는 조어가 쓸데없이 긴 것이 많아 남는 자국이 많다고 평한 것은 이들이 간엄의 법도 대신 자구의 모방에 그친 것을 의미한다. 명대 문장가들은 이러한 字句의 모방만을 일삼았기 때문에 비루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字句가 짧다고 무조건 簡

49) 李宜顯, 「雲陽漫錄」,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28~429면 : 古文法度甚簡嚴, 絕無浮字贅句。下至唐宋 韓、歐、蘇、曾諸公, 無不皆然。且韓、柳以下八家, 雖一意法古, 只竊取意致法度而已, 文字則絕不襲用, 非其才不能也, 薄而不爲也。至皇明 李、王諸公, 自謂 : “高出韓、歐, 直與左、馬並驅。” 而造語多冗長, 浮贅字句, 不勝指摘。且雜取諸子左、馬文字, 重複相仍, 拾掇韓、歐諸公已棄之餘, 而高自稱許, 可謂陋矣, 至詩亦然。

嚴한 문장이라고 이를 수 있는가. 다음을 보자.

세속은 ‘而’나 ‘之’자를 드물게 쓰는 것으로 簡古하다고 여기니 이것은 한쪽에 집착한 고루한 견해이다. ‘古’로는 선진, 六經, 서한만 한 것이 없다. 그러나 『莊子』, 『列子』, 『國語』, 『全國策』, 『史記』 등의 글에도 虛字가 매우 많으며, 『論語』, 『孟子』, 『禮記』도 그렇다. 어찌 ‘而’나 ‘之’자의 많고 적으므로 그 문의 ‘古’와 ‘不古’를 정하겠는가? 이후에 昌黎의 글은 진실로 虛字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곳도 있으나 虛字를 사용한 곳도 많으니 이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다. 비유한다면 집을 짓는 사람이 재목의 길고 짧은 것을 각각 마땅하게 사용한 후에 집의 체제가 성립된 것과 같으니 만약 한결같이 짧은 것만 사용한다면 어찌 체제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근래에 글 짓는 이를 보면 여기에 빠져서 힘써 字句를 재단하고 짧게 하여 머뭇거리며 막히고 마르고 쇠하여 말이 통창하지 못한 것이 많아 風神과 生色이 볼 만한 것이 전혀 없으니 ‘古’를 배우기를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⁰⁾

陶谷은 이반룡과 왕세정으로부터 시작된 명의 擬古文이 조선에 전래되자,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당시 조선의 문인들이 단지 형식적으로 虛字를 드물게 사용한 것을 簡古한 문장이라고 잘 못 받아들인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簡古한 문장으로는 先秦 · 六經 · 兩漢의 글이 최고지만, 경서 안에서도 허자를 사용한 예가 많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허자를 많이 쓰고 적게 쓰

50)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454면: 世俗以罕用而之字爲簡古, 此乃局滯固陋之見也. 古莫如先秦六經西京之文, 而《莊》、《列》、《左》、《國》、《國策》、《史記》等書, 最多虛字, 《論》、《孟》、《禮記》亦然. 豈以而之字多少, 定其文之古不古乎. 後來昌黎之文, 固有絕不使虛字處, 而其用虛字者亦多, 此只在用之之如何耳. 譬如作室者用材, 長短各隨其宜, 然後方成室屋體制, 若一例用其短, 豈復成體制乎. 近見爲文者泥於此, 務爲截短字句, 蹇澁枯颯, 語多不暢, 絕無風神生色之可觀, 可謂不善學古矣.

는 것으로써 古 · 不古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陶谷의 주장이다.

또한 韓愈의 문장에도 허자를 사용한 예가 많으니, 이는 곧 허자의 사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허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문장의 체제에 따라서 허자의 用處를 잘 가려 쓰는 것이 옳은 것이며, 자구를 끊어 짧게 하려고만 한다면 문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풍신과 생색의 불만함이 전혀 없다고 하였다. 결국 簡嚴의 美는 단순히 글자수의 압축이나 생략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장의 간결함이 아닌 것이다.

陶谷이 말하는 簡嚴이 짧은 字句의 구사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周禮』에 「冬官」이 빠져 있는데 한나라가 일어나자 천금으로써 현상을 걸고 구했으나 얻을 수 없었다. 지금 보유했던 「고공기」는 한나라 유학자가 지은 것이다. 그 문장이 사람을 고무시키는데, 그것을 읽으면 정신이 왕성해짐을 깨닫게 된다. 대저 古文은 법도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저절로 법도에 맞아서 도끼질한 흔적이 없으니, 후세가 가히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韓愈와 歐陽脩의 문장은 높기는 하지만 결구하고 안배한 자취가 뻑뻑한 것을 볼 수 있으니, 이것은 시대의 차이이다.⁵¹⁾

陶谷은 韓愈와 歐陽脩의 문장이 높기는 하지만, 고인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결구와 안배의 흔적 때문이라고 보았다. 고인의 글이 절로 법도에 맞아 조금도 다듬은 흔적이 없는 반면, 韓愈와 歐陽脩는 고인을 典範으로 삼아 그 글처럼 쓰기 위해 결구와 안배에 진력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51)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40면 : 《周禮》〈冬官〉闕, 漢興, 以千金購求, 不能得. 今所補〈考工記〉者, 漢儒作也. 其文鼓舞, 讀之, 覺神王. 大抵古文, 如無法度, 而自合法度, 無斤錘之痕, 非後世可及也. 如韓、歐文章高矣, 結構安排之跡, 森然可見, 此時代之辨也.

결구와 안배는 문장의 짜임새와 의미의 배치 등을 말한다. 그리고 古文을 典範으로 삼아 글을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사항일 수 밖에 없다. 陶谷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결구와 안배에서의 簡嚴이었다.⁵²⁾ 그리고 이 결구와 안배는 篇과 章을 구성하여 서술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 篇法과 章法の 엄격한 구사를 통해 簡嚴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篇法과 章法の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은 平暢한 것으로 으뜸을 삼는 것이 있고 簡奧한 것으로 주를 삼는 것이 있다. 요약한다면, 맥락이 문란하지 않고 서술함에 법도가 있어 함께 문장의 법도에 맞으면 그만이지, 꼭 치우쳐 一格을 주로 할 필요는 없다. 근래에 문을 말하는 자들이 걸핏하면 ‘簡’ 한 글자로만 말하여 구절의 글자를 되도록 短澁하게 한다. ‘簡’이라는 말이 어찌 다만 구절의 글자에서 구해지겠는가? 篇法과 章法이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만약 그 글귀는 간략하되 말을 길게 늘어놓으면 어찌 ‘簡’을 귀하게 여긴 것이며, 맥락이 서로 어그러지고 서술함이 정연하지 않으면 어찌 그 ‘簡’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겠는가? 우선 明人으로 증명한다면 걸핏하면 先秦을 끌어다가 힘써 구법을 簡奧하게 하려 하나, 일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지극히 번다하다. 저들이 歐陽脩와 曾鞏을 하찮게 보나 사실 歐陽脩와 曾鞏은 일을 서술함에는 매우 간략하여 明人보다 훨씬 뛰어나다. 명인의 재력이 뛰어난 것이 진실로 후세 사람에게 견줄 바가 아닌데도 오히려 또 이와 같으니, 하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말할 것이 있겠는가.⁵³⁾

52) 김하운, 『陶谷 李宜顯의 作文論 研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pp.38~39.

53) 李宜顯, 「陶峽叢說」, 『陶谷集』 : 『韓國文集叢刊』 181, 454~454면 : 文有以平暢爲長者, 亦有以簡奧爲主者。要之脈絡不紊, 叙致有法, 俱合於文章規度則斯已矣, 正不必偏主一格也。近來稱文者, 輒以簡之一字爲言, 句字務爲短澁。簡之爲言, 豈但以句字求之哉。篇法章法, 無不

陶谷은 문장이 평창한 것도 있고 간소한 것도 있다고 하면서 문장은 법도에 맞으면 그만일 뿐 한 가지 격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맥락이 가지런하고 서술에 법이 있어서 문장의 법도에만 들어맞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 글을 논하는 자들은 오로지 글자를 짧고 난삽하게 하는 것을 ‘簡’이라고 여겼는데, 陶谷은 ‘句’는 간결하지만 문장이 지루하고, 맥락이 어긋나서 서술이 정연하지 않다면 그것은 간결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서 명나라 사람들은 선진의 구법을 따라 간오하게 하려 했지만 서사는 번잡하기 이를 데 없고, 그러면서도 歐陽脩와 曾鞏을 앞보고 있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였다.

즉, 陶谷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장은 결구와 안배에 노력하여 章法과 篇法이 모두 簡嚴한 文의 형식미를 갖춘 것이고, 뜻은 심오하며 문장은 平暢하여 그 서술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簡嚴’을 가장 필요로 하고 명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문체인 碑誌文를 통해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려 하였다.

皆然。若簡其句而冗其語，則何貴其簡，脉絡相戾，叙致不整，則何貴其簡。姑以明人證之，明人動引先秦，務欲簡奧其句法，而叙事則極其繁蕪。彼固下視歐、曾，而實則歐、曾叙事甚簡。大勝於明人，明人才力之雄，固非後人之比，而猶且如此，況其他乎。

IV. 다양한 편장구성을 통한 簡嚴美의 추구

비지문은 고인의 事蹟과 덕행을 칭송하여 돌에 새겨 묘위에 세우거나 무덤 안에 묻기 위해 쓴 글이다.⁵⁴⁾ 따라서 고인의 공덕을 후세에 알리기 위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비지문과 史傳體 문장은 비슷하다. 그러나 史傳體 문장이 史家의 엄정한 판단에 의해 인물이 선택되는 반면, 비지문의 인물은 타인의 청탁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史傳體 문장이 인물에 대한褒貶이 모두 가능한 문체라면 비지문은 한결 같이 고인의 表裝을 위주로 한다.

『文心雕龍』에서도 “碑에 속하는 문체는 史家의 재능에 의뢰한다. 그 序는 傳이고 본문은 銘이다. 인물의 盛德을 드러내 서술할 때는 반드시 그의 맑은 품모의 정확과 큰 아름다움을 밝혀 드러내어 반드시 높고 위대한 공렬을 내보여야 한다.”⁵⁵⁾라고 하면서 비지문이 사전체 문장과 유사하다는 점과 인물에 대한 表裝을 위주로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비지문의 表裝的 성격 때문에 대상 인물의 행적이 매우 사소하더라도 이를 과대포장하여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농암이 왕엄주의 문장拙하다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었다.

陶谷은 농암의 제자로서 스승이 제기한 이러한 폐단에 대해 일찍이 인지하

54) 비지문은 그 기록을 새겨서 놓는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뉜다. 우선 묘 안에 묻는 것으로 墓地·壙誌·墳版·墓版文 등이 있고, 묘의 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墓碑·墓表·墓碣 등이 있으며, 관직이 높은 사람의 경우 묘 입구에 세우는 神道碑가 있다. 또한 문장의 끝에 銘文이 첨가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묘지문 뒤에 명문이 있으면 墓誌銘이라고 한다.

55) 유협, 『문심조룡』, 권3 <誄碑> 제12: 夫屬碑之體, 資乎史才。其序則傳, 其文則銘。標序盛德, 必見清風之華昭紀鴻懿, 必見峻偉之烈。

고 ‘簡嚴’한 글쓰기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200여편에 달하는 비지문이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簡嚴’이란 것은 단순히 자구나 분량의 간략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簡嚴한 문장은 부화하거나 군더더기의 자구가 없으면서도, 篇章의 치밀한 안배를 통해 각 장의 주제와 글 전체의 주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陶谷은 비지문을 쓰면서 篇·章간의 연결과 배치를 통해 이러한 ‘簡嚴美’를 획득하려 하였으며, 阿諛로 흐르기 쉬운 비지문의 한계를 엄격한 소재의 선택을 통해 객관성을 기본으로 진실성을 담아 읽는 이로 하여금 서술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陶谷이 李熙卿(李緯)에게 아버지 이세백의 신도비를 부탁하며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는 이런 글[墓文]을 구할 때, 반드시 번다하고 세세한 것까지 언급해주는 것을 좋게 여기지만, 제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일생의 큰 즐거만을 거론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긴요하지 않은 이력과 세세한 일들은 모두 제외해 버리십시오.⁵⁶⁾

위의 글에 陶谷이 가진 碑誌文 저술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드러나 있다. 기본적으로 碑誌文은 묘주에 대한 칭찬이 위주이기 때문에 그 글을 청탁하는 자손들은 자기 집안을 빛내고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다뤄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자는 기본 자료인 行狀을 살펴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取舍選擇하여 묘주의 삶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陶谷은 긴요하지 않은 이력이나 세세한 일들을 제외하고 일생의 큰 즐거만을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陶谷은 묘주의 삶을 구성하는 큰 즐거움을 ‘簡’으로 설정하고, 긴요

56) 李宜顯, 「與李熙卿」,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515면: 人家求此等文, 必以費辭繁細爲尙, 而鄙見不如此。學其大者闡揚之, 不緊履歷細小事行, 皆從刊落。

하지 않는 이력이나 세세한 일들을 ‘嚴’을 기준으로 제외하면서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陶谷은 이러한 ‘簡嚴’을 비지문의 기본적인 저술 기준으로 삼으면서 다양한 편장 운용 방법을 통해 서술대상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陶谷이 篇과 章의 구성 방법과 엄격한 소재의 선택 등을 통해 簡嚴을 어떻게 구현하려 했는지, 阿諛와 칭송으로 점철될 수 있는 비지문에 객관성과 진실성을 불어넣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동일 어구의 반복을 통한 分章法의 구사

陶谷은 비지문을 지으면서 동일어구의 반복을 통해 장을 나누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읽는이로 하여금 묘주의 일생이나 성품 등이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각 장의 소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글 전체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묘주의 일생의 행적에서 적절한 소재를 찾아내고 이를 정리하여 장을 배치하는 것은 찬자의 의도에 따른 것이고 이 의도는 찬자가 가진 주제의식에 의해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陶谷이 동일어구의 반복을 통해 어떻게 편과 장을 구성하면서 간엄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음을 살펴보자.

<禮曹參判安公墓碣銘并序>

① 공은 휘가 纘이고 자가 栗甫이고 自號가 鶴村이며 성은 安氏로, 계통이 竹山에서 나왔다. 그 선대에 襄良公 漢平과 僖靖公 社卿, 文貞公 克仁이 계셨는데, 3대가 고려조에 현달하였다. 都巡問使 淑老와 都觀察使

望之와 延昌尉로 시호가 良孝公인 孟聘은 3대가 조선조에서 현달하였다. 또다시 3대를 지나 공의 고조와 증조와 조고 3대가 되었는데, 副司直 彦鍾와 僉知中樞府事 景濂과 通川郡守로 이조판서에 추증된 大楠이며, 司僕寺僉正으로 左參贊에 추증된 휘 廷燮과 정부인에 추증된 진주 유씨로 우참찬 澗의 따님은 실로 공의 先考와 先妣이니, 이것이 바로 공의 선대 이시다.

公諱縝，字栗甫，自號鶴村，姓安氏，系出竹山。其先有襄良公漢平，僖靖公社卿，文貞公克仁三世顯於麗。都巡問使淑老，都觀察使望之，延昌尉良孝公孟聘三世顯於本朝。又歷三世而爲公高曾祖祖三世者，曰副司直彦鍾，僉知中樞景濂，通川郡守贈吏曹判書大楠，而司僕僉正贈左參贊諱廷燮，贈貞夫人晉州柳氏右參贊澗女者，寔公之考若妣，斯其爲公族出也。

② 인조 기묘년(1639)에 司馬試에 합격하고, 효종 임진년(1654)에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나누어 예속되었다가 차례로 승진하여 學正에 이르렀다. 을미년(1655) 승정원 주서에 제수되었다가 승진하여 典籍과 兵曹佐郎이 되었다. 부친상을 만났다가 상복을 벗고 直講과 병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며, 司書와 正言으로 전직하고, 安州判官으로 나갔다. 현종 경자년(1660)에 다시 정언과 병조 정랑이 되었으며, 또다시 靈光郡守로 나갔다가 들어와 掌令과 정언이 되었고, 또다시 西原縣監으로 나갔다. 갑진년(1664)에 獻納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이윽고 東萊府使에 발탁되었다. 정미년(1667) 全州府尹이 되었다가 돌아와 判決事가 되고, 형조와 병조의 참의가 되었으며, 여러번 승지가 되었다. 신해년(1671)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가 임기가 차자 준례에 따라 西樞에 맡겨지고, 또다시 여러번 승지가 되었으며, 중간에 판결사와 호조 참의가 되었고, 淸風府使로 나갔다가 들어와 승지가 되었다. 숙종 을묘년(1675) 安邊府使가 되었다가 돌아오고, 또다시 茂朱府使로 나갔다. 경신년(1680), 여러번 승지와 병조 호조의 참의에 제수되고, 황해도 관찰사와 회양부사가 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사양하였다. 신유년(1681) 사간원의 장으로 발탁되었는데 체직하였다가 다시 들어갔으며, 久次로 승진하여 공조 참판에 제수되었다가 호조와 예조의 참판으로 전직하고 도총관과 의금부를 겸하였으며, 開城留守가 된

지 3년만에 돌아왔다. 그리하여 두 번 사간원의 장관이 되고 두 번 도승지가 되고 한 번 예조 참관이 되었으며 藥房의 공로로 인하여 嘉義大夫로 승진하였으니, 이는 공이 지내신 관직이다.

仁祖己卯, 中司馬試, 孝宗壬辰, 擢文科, 分隸成均, 序陞至學正。乙未, 拜承政院注書, 陞爲典籍, 兵曹佐郎。遭外艱制畢, 拜直講、兵郎, 轉司書、正言, 出爲安州判官。顯宗庚子, 復爲正言、兵曹正郎, 又出爲靈光郡守, 入爲掌令、正言, 復出爲西原縣監, 甲辰, 以獻納召, 已擢東萊府使。丁未, 爲全州府尹, 還爲判決事, 刑兵曹參議, 屢爲承旨。辛亥, 觀察江原道, 秩滿, 例付西樞, 又屢爲承旨, 間爲判決事, 戶曹參議, 出爲淸風府使, 入爲承旨。肅宗乙卯, 爲安邊府使, 還又出爲茂朱府使。庚申, 屢拜承旨, 兵戶曹參議, 爲黃海道觀察使、淮陽府使, 俱病辭。辛酉, 擢諫長, 遞而復入, 以久次陞拜工曹參判, 轉貳戶禮二曹, 兼揔管金吾, 爲開城留守三年而歸。再長諫院, 再爲都承旨, 一爲禮參, 用藥院勞, 陞嘉義, 斯其爲公官歷也。

③ 태어나면서부터 기국과 도량이 일찍 성취되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는데 슬피 사모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였으며, 참찬공을 섬길 적에 반드시 유순한 얼굴빛과 공손한 모습이 있었으며, 병환이 위독하자 북극성에 기도하여 대신 죽을 것을 청하였고, 초상을 당하자 또다시 너무 슬퍼하여 몸을 훼손해서 뼈만 앙상하였다. 형제들이 우애하고 친족의 화목함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미치기 어려운 바가 많았다. 공은 안의 행실이 순수하게 갖추어져서 손가락을 꼽아 다 말하기가 어려우므로 특별히 그 큰 것을 기록하니, 나머지는 모두 미루어 알 수 있다. 공은 사람을 대할 적에 온화하고 후덕하여 겉과 속이 없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엄격하였다. 일찍이 올바른 분을 욕하는 자를 대면하여 배척하였다가 그의 원망과 노여움을 받아 마침내 槐院의 막힘이 있었고, 銓曹에서는 春坊의 관직에 의망하여 공론을 보였는데, 공은 두 번 모두 태연하였다. 역적 尹鑄와 동갑이어서 서로 친하였는데, 뒤에 그의 나쁜 심술을 엿보고는 마침내 소원히 하고 절교하였다. 윤희가 은총을 믿고 권력을 행사하자, 공을 좋은 말로 유인하였으나, 공은 정색하고 꺾으니 윤희는 기가 꺾이었다. 이때 宋尤庵 文正公이 첫 번째로 화를 받으니, 윤희의 당은

똑같이 말하여 귀양 보낼 것을 청해서 끝내 윤희를 얻었다. 공은 이때 승지로 있으면서 강력히 간쟁하다가 여러 간신들에게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 공은 비록 좌절을 당하였으나, 士論들은 그 方格함을 소중히 여겼고, 또 장자가 擧幡하는 대열에 참여하였다가 먼 지방으로 유배가니, 사람들은 모두 공의 집안의 올바른 가르침을 탄복하였다. 공은 교유할 때에 뜨겁게 쫓아다니지 않고 더욱 형세를 멀리 피하였다. 仁敬王后가 덕으로 선발되자 공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永叔은 내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나, 이제는 찾아가 친하게 따를 수가 없다.”

하였으니, 영숙은 金公萬基의 자이다. 김공은 참으로 士類였는데도 공은 오히려 혐의하니 그 조행의 바름이 이와 같았다. 평소 성품이 담박하고 고요하여 공직에서 물러나오면 문을 닫고 높이 누웠고 절대로 친구들을 쫓아다니지 않았다. 평소에 한결같이 검약함으로 스스로 몸을 다스려서 아름다운 옷을 좋아하지 않고 저축하기를 일삼지 아니하여 중외의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재산이 조금도 증식된 바가 없었다. 물건을 사양하고 받는 것을 신중히 하여 지푸라기 한 개도 함부로 취하지 아니하여 일찍이 사사로운 일로 남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또한 남의 사사로운 청탁을 받지 않았다. 일찍부터 학업을 갈고 닦았으며, 더욱 『論語』와 『書經』에 공력을 썼다. 그리하여 이미 크게 근본과 실체가 있었으니, 말하여 문장을 지움에 풍부하고 울창하고 典雅하였다. 고개를 숙여 과장에 나가면 번번이 동무들을 굴복시켰으나 절대로 스스로 기뻐하지 않았다. 말씀을 하게 되면 옛날을 본받아서 정성스러우면서도 재미가 있었다. 자제들에게 말씀하기를,

“先考께서 『小學』 책을 읽어 중신토록 이것을 행하셨으니, 나 또한 한 마음으로 『小學』을 공경하고 믿는다. 너희들도 힘써라.”

하였으며, 또 고요함을 지키고 학문을 강론하는 것으로 신신당부하고 경계하였다. 공은 유학자이나 우활하지 아니하여 세상의 일을 두루 알아 일에 막히는 일이 적었다. 同春 宋文正公이 병조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공에게 軍政을 맡기고는, 크게 칭찬을 가하였다. 공은 뒤에 나가 여덟 고을의 兵符를 차고 藩政을 관찰하고 분간함에 이르러서 모두 마땅하지 않

음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특이한 공적을 드러냄이 한때 사람들이 모두 추앙하여 통달한 재주라고 인정하였다. 참찬공이 병자년과 정묘년 난리 뒤에 항상 말씀하기를,

“내 조정에 오른지가 오래되었으나 한번도 일찍이 오랑캐의 조정에 무릎을 굽힌 적이 없으니, 이는 다소 스스로 다행스러운 것이다.”

하였다. 공도 또다시 네 번 북경의 사신으로 차임되었으나, 모두 公格으로 가지 않고 마침내 말하기를,

“내 누린내 나고 털방석을 입는 오랑캐의 소굴을 밟지 않았으니, 眞人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한 번 중국의 禮樂과 文物을 본다면 어찌 상쾌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 말씀은 비록 농담에 가까우나, 뜻에 고상함을 볼 수 있으니, 이는 공이 행실을 닦은 내용이다.

生而器度夙就。幼失母，哀慕如成人，事參贊公，必有愉色婉容，疾病，禱北辰請代，喪又柴毀骨立。以至友冑弟睦親黨，多人所難及。盖公內行淳備，不易屈指，特志其大，都它可類知也。待人，和厚亡裏襖。然嚴於淑慝辨。嘗面斥醜正者，被其怨怒，遂有槐院之枳，銓曹爲擬春坊，以示公議，公兩皆悠然也。與賊鑑同庚相熟，後覩心術，乃疎絕。及其負寵用事，鉤語餽公，公正色折之，鑑氣沮。時尤菴宋文正公爲禍首，鑑黨合辭請竄，竟得允。公以承旨力爭，爲羣奸劾罷。公雖被摧敗，士論重其方格，而又長子與舉幡列，編配遠方，咸服公家教之正。公交遊，不爲翁翁熱，尤避遠形勢。仁敬王后之膺德選也，公語人曰：“永叔吾所善，今不可過從。”永叔金公萬基字也。金公固士流，而公猶嫌焉，其操履之貞如此。雅性澹靜，公退，閉門高臥，絕不迫逐朋儕。平居，壹以儉約自律，不喜服美，不事積著，歷中外官，訾產亡所增。脊於辭受，一芥不妄取，未嘗以私干人，亦不受人私。蚤刻厲學業，尤用工於魯論書經。既茂有本實，發爲文辭，瞻蔚典暢。俯就場屋，輒屈曹偶，而殊不自喜。言則古昔，愨而有味。其語子弟曰：“先考讀《小學》書，終身服行，吾亦一心敬信，爾曹勉之。”又以守靜講學，申申戒導。公儒而不迂，周知世務，於事鮮有底滯。同春宋文正公長本兵，任以軍政，甚加稱賞。及後出綰八符，以至按藩分筦，罄無不宜，隨著異績，一時翕然，以通才歸之。參贊公丙丁亂後，常曰：“吾登朝籍久矣，一未曾屈膝虜庭，此差可自幸。”公又四差燕价，

俱以公格不行，乃曰：“吾不踏腥羶之窟，待真人出，一觀禮樂文物，豈不快哉。”語雖近戲，志尚可見，斯其爲公行治也。

④ 萬曆 정사년(1617) 12월 신해일에 출생하여 숙종 을축년(1685) 정월 기묘일에 별세하였다. 이해 3월 정해일에 原州의 雲谷里에 장례하고, 전후 두 부인을 합장하였다. 전부인 全州李氏는 학생 昭의 따님인데 어질었으나 장수하지 못하였다. 두 아들을 남겼으니, 장남은 相億이고 차남은 相萬인데, 모두 義禁府都事로 두 宋文正 문하에서 함께 遊學하여 명성이 있다. 후부인 安東權氏는 牧使 義中의 따님인데, 공에게 시집와서 공이 벼슬에 올랐는 바, 공의 청렴과 은혜로움을 내조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3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 相眞은 司宰監僉正이고, 다음은 相泰와 相英이며, 딸은 監察 朴弼英에게 출가하였다. 允廸과 允禧는 상익의 소생이고, 군수 允升과 李恒坤, 진사 李翼明, 현감 申喜集의 아내는 상만의 소생이며, 允觀, 允恒과 李思泰, 宋潭源, 南濟彦의 아내는 상진의 소생이고, 允恭은 그의 서자이며, 允謙, 允復과 正郎 李益炆의 아내는 상태의 소생이고, 奉事 允德·允澤·允定·允吉과 朴興漢, 진사 洪啓宇의 아내는 상영의 소생이다.

참관 師洙와 申廸, 교리 林象德, 지평 金漢喆, 李普昌의 아내는 朴弼英의 소생이니, 이는 공의 내외손이 된다.

증손은 군수 宗海와 현감 宗國·宗彬, 경력 宗臣·宗高·宗說·宗哲·宗傑·宗述·宗岳·宗衡·宗岱·宗崙·宗尹·宗偉·宗望·宗尙·宗老·宗福·宗祿·宗祐·宗業이다.

현손으로는 진사 栻·杓·格·楹·櫛·櫟·權·楡이다. 외손으로서 아직 어린 자는 모두 90여명이니, 이는 공의 生卒과 및 배필과 자손이다.

生于萬曆丁巳十二月辛亥，卒于肅宗乙丑正月己卯。以是年三月丁亥，葬于原州雲谷里。以前後二夫人合祔。前夫人全州李氏，學生昭女，賢而不壽。留二男，長相億，次相萬，俱義禁都事，俱游二宋文正門有名。後夫人安東權氏，牧使義中女，歸公而公通籍，其佐公廉與惠者非一。生三男一女，男相眞司宰僉正，次相泰，相英，女適監察朴弼英。曰允廸，允禧，相億出，郡守允升，李恒坤，進士李翼明，縣監申喜集妻，相萬出，允觀，允恒，李思泰，宋潭

源, 南濟彥妻, 相眞出, 而允恭其庶子, 允謙, 允復, 正郎李益烜妻, 相泰出, 奉事允德, 允澤, 允定, 允吉, 朴興漢, 進士洪啓宇妻, 相英出, 參判師洙, 申迪, 校理林象德, 持平金漢喆, 李普昌妻, 朴弼英出, 是爲公內外孫, 而其爲曾孫者, 曰郡守宗海, 縣監宗國, 宗彬, 經歷宗臣, 宗高, 宗說, 宗哲, 宗傑, 宗述, 宗岳, 宗衡, 宗岱, 宗崙, 宗尹, 宗偉, 宗望, 宗尙, 宗老, 宗福, 宗祿, 宗祏, 宗業, 爲玄孫者, 曰進士栻, 杓, 格, 楡, 樞, 櫟, 權, 檣, 外出幼未名者, 俱不錄, 摠九十餘人, 斯其爲公始卒若嫡匹子姓也,

⑥ 불초는 늦게 태어나서 공이 조정에 계실 때에 미처 벼슬하지 못하였으나, 선군자께서 평소 공과 익숙히 지내어 진실로 일찍이 가정에서 받들어 들은 내용이 있다. 공은 세상에 사신지가 69년에 30여년을 넘게 벼슬하셨다. 집안에 있을 때에는 효자가 되고 몸가짐은 꼴꼴한 선비가 되고 백성을 다스려 循吏가 되고 조정에 서서 성실한 신하가 되어 순함을 이행하고 바름에 거하여 명성과 실제가 모두 지극하였다. 그리하여 남을 잘 휘방하는 자들도 감히 공의 하자를 지적하지 못하니, 공은 어찌 좋은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는 마땅히 金石에 비문을 새겨서 내세에 드리워야 하는 것이다.

不佞晩生, 不及公在朝時, 而先君子雅習於公, 固嘗有承聞家庭者矣。公生世六十有九年, 仕宦餘三十年。居家爲孝子, 持身爲介士, 治民爲循吏, 立朝爲信臣, 履順居正, 聲實並臻。善毀者莫敢瑕玷, 公豈非昭代之完人哉! 是宜刻銘金石, 以垂來世, 其詞曰 :

⑦ 선비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반드시 그 내면을 살펴야 하네. 밖은 운택하나 안이 마르면 흑색에 채색을 입힌 것과 같아 말로가 참담하여 실패가 서로 나타나네. 공은 질박한 행실이 있어서 흰 비단을 마련한 뒤에 그림을 그렸네. 조정에서 임금을 섬길 적에 오직 의를 배합하였네. 추위와 더위가 차례로 변하나, 노송나무와 칙백나무는 그대로이네. 관직을 일으키고 관청에서 훌륭한 일을 한 것을 또 전하여 기재할만 하네. 성실함이 질장군에 가득하여 그 마음이 화락하고 착하였네. 무엇으로 이것을 이룩하였는고? 내면을 수양함에 의뢰하였네. 내 이 아름다운 덕

을 명문에 새겨 세속의 무리들을 풍자하노라.

維士何觀，必觀其內。外澤中乾，如黑而采。末路駢黷，互見壞敗。公有質行，後素之繪。立朝事君，惟義與配。寒燠迭變，枯栢自在。興官著事，又可傳載。有孚盈缶，其心樂豈。曷由以致，內修是賴。我銘斯懿，用風俗輩。

위의 <禮曹參判安公墓碣銘并序>는 다음과 같이 6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부분은 묘주의 성명과 선대에 대한 소개, ②는 묘주가 지내온 관력, ③은 묘주가 행실을 닦은 내용, ④는 묘주의 생몰과 처·자손에 대한 소개, ⑤는 찬명동기, ⑥은 銘 부분이다. 이 묘갈명은 각 단락을 끝마다 斯其爲公族出也, 斯其爲公官歷也, 斯其爲公行治也, 斯其爲公始卒若嬖匹子姓也이라 맺으면서, 斯其爲~也라는 동일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동일 어구를 사용할 경우 각 단락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효과와 함께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이 글은 ①단락이 172자, ②단락이 270자, ④단락이 98자, ⑤단락이 80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③단락은 549자로 다른 단락에 비해 많은 양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글 전체의 주제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단락의 구체적 소재는 공의 지극한 효성과 우애 등 집안에서의 행실, 관직 생활에서 옳고 그름의 명확한 분별, 윤희와의 일화를 통한 지조 등 조행의 바름, 검소한 성품과 학업에 대한 정진 등 이다. ①과 ②, ④단락의 경우 찬자의 개인적 의견은 모두 배제한 채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면, ③단락은 陶谷이 엄격한 기준에 의해 묘주를 드러내고자 선택한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⑤와 ⑥단락의 찬명동기와 銘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陶谷은 이 글을 구성하면서 일생의 소소한 행적들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묘주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주요한 사실들을 뽑아내어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단락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단락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문장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도록 하여 ‘간엄’을 획득해낸 것이

다.

<善山府使權公墓碣銘 并序>의 경우 위의 예와 가장 흡사한 구조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이 묘갈명의 단락은 첫 번째, 찬명동기, 두 번째, 묘주의 성명과 자손에 대한 소개, 세 번째, 생물연대와 장지, 처 · 자손에 대한 소개, 네 번째, 묘주가 지내온 관력, 다섯 번째, 집에서의 修身과 師承關係에서 보이는 修學 내용, 여섯 번째, 외직에 있을 때 쌓은 정치적 공적, 일곱 번째, 개결한 성품과 재능, 여덟 번째, 찬자와 관련된 일화, 마지막으로 銘 등 9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묘갈명은 각 편의 마지막을 此公之官歷也, 此公之修於家若師資淵源者也, 此公之修於家若師資淵源者也, 此公政績之施於民者也, 此又公之平生懿聞 처럼 ‘此……也’의 구법을 반복적으로 써서 장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은 陶谷이 김재로에게 보내어 교정을 부탁한 작품으로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서사는 상투적이지 않게 구성하였으며⁵⁷⁾, 장을 나누어 분량을 안배한 것은 왕형공의 방식을 차용했으나 그대로 따라서 하지는 않았으며,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비록 상투어라 할지라도 글에 어울리는 것이라면 사용했다⁵⁸⁾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 陶谷이 가진 창조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도

57) 李宜顯, 「與金仲禮」, 『陶谷集』, 권 31 : 『韓國文集叢刊』 181, 517면 : 序事稍異常套, 而古多有是法矣, 如何如何。近日金石文, 例多溢美, 鄙心竊嘗痛之。故此又務加稱停, 台亦熟此兄矣。如有過不及處, 亦斥示之如何。

58) 李宜顯, 「與金仲禮」, 『陶谷集』, 권 31 : 『韓國文集叢刊』 181, 517~518면 : 文字所籤教俱犁然當於心 台之看文字明透如此 非鄙拙之所及 欽歎欽歎 此所以不揆露醜之嫌而奉浼者也 嘗觀先輩文字 既稱先生 則中間隨其文勢 或稱公無定例 故如是下語矣 若礙眼則當依示改之 又字臬兀云者 更看誠然矣 被先生詩禮之訓云者 誠好其下當以若干句承之矣 如是則雖不別爲贊揚遂菴道德 亦無妨耶 晦木 朱子詩曰佩韋遵父訓 晦木謹師傳 以此觀之 晦字似是矣 晨昏一句當去之以所示潤色改下至訣下 亦依添寓公 曾聞 宋姓士人煒之姓族云耳 刷馬雖俗語 俗語用於古文 古多有之 似不必太拘 而來示貫字亦好 當依改 二百字 古人碑誌 凡於此等處 必言其數 如韓碑文字務簡 而於此等處則必明言之 獨東文不如此 或稱不費 或稱過多 此反涉套語 鄙甚厭之 故明言其數矣 所示如此 當更商量 而此等處無甚關緊矣 平生始終云云 所示無乃以句法太長耶 亦當更商耳 至於句法無於古云云 王荊公葛郎中誌 正用此法 而文字裁剪 不盡如此 若一從其法 長短大小 無少參差 則乃是摸擬之甚者 非但僭猥 亦是文字之病 故如是而已矣

함께 드러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곡이 한편의 비지문을 쓰면서 자신의 문장론을 실험하기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季妹貞夫人墓誌>경우도 동일어구의 반복을 통해 편장을 나누고 있는 예이다. 이 글은 이의현의 막내 누이에 대한 묘지이다. 첫 번째 단락은 이 글을 짓게 된 동기이며 두번째는 이 글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될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부분이다. 세 번째 단락부터 묘주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시작되는데, 우선 시작은 묘주의 幼儀에 대해 서술한 부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법도에 걸맞는 행동거지를 갖췄음을 말하였다. 네 번째 단락은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다룬 부분이다. 며느리로서의 인정은 물론 내조에도 예법을 갖췄으며, 규문을 단속하고 살림꾸리기와 제사 모시기에도 정성을 다하였음을 서술하였다. 다섯번째는 어머니로서의 훌륭함에 대해 다룬 부분으로 몸소 가정의 교훈을 실천하고 청렴한 지조를 토대로 자손을 신칙한 면모를 부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 단락은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단락까지의 내용을 총괄하는 부분으로 부인이 효성과 우애에 근본하였음을 몇 가지 실제 일화를 통해 보여주는 부분이다. 일곱번째는 이 글에 대한 검사이고, 여덟 번째는 世系の 기록, 아홉 번째는 葬地, 마지막은 자손에 대한 기록이다. 銘은 짓지 않았다. 이 글은 글의 서두에서 幼儀, 婦道, 母教 세가지 주요 소재를 제시하고 각 장을 ‘請言幼儀……, 請言婦道……, 請言母教……’ 같이 ‘請言’이라는 동일 어구를 통해 나누고 있다. 그리고 각 단락에 적절한 일화를 찾아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자의 평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묘주에 대해 평한 내용을 병기함으로써 至親에 대한 이 글이 객관성과 진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취했다.

<吏曹判書權公神道碑銘 并序>은 우선 묘주가 과거에 합격하여 거처온 관직 생활과 정계에서 활동하던 시절의 이야기, 두 번째, 집안의 세계와 자손, 세 번째, 찬명 동기, 네 번째, 공의 청명직절함 · 사승관계와 학문의 수학, 다섯 번째, 공의 지극한 효성과 친인척들에 대한 애정, 여섯 번째, 많은 독서량과

학문을 대하는 부지런함, 일곱 번째, 명분을 세우고 의를 지키는 올곧음, 여덟 번째, 찬명동기의 강화, 마지막 銘의 9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네 번째 단락의 修學한 師承 관계를 밝히면서 학문과 덕의 성취를 기술한 부분과 다섯 번째의 상을 당하여 몸을 훼손하고, 외가를 대하고 조카들을 대함에 정성을 다함을 강조하면서 공의 효성스러움과 자애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 여섯 번째의 古書를 많이 읽어서 경서에 박식하며, 행동함에 항상 경서에 근거하였으며, 항상 자신의 행동을 경계하고 학문하는데 절대 게을리 하지 말 것을 자식들에게 면려하는 내용을 기술한 부분, 일곱 번째의 세상이 혼탁하면 초야에서 농사를 짓고, 시대가 좋으면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는 出處의 바름을 강조하였고, 명분을 세우고 의를 지키는 것이 뛰어난 자였음을 강조한 단락의 경우 마지막을 其世德師資之美 有如此者, 其內行篤摯 有如此者, 其勤於爲學 老益不懈 有如此者, 其立名崇義 確有所守 有如此者 등 ‘其~有如此者’ 라는 동일 구법의 반복을 구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바로 이 부분에 각 단락의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구법을 반복 구사하는 것은 篇章을 엄격히 나누어 각 장의 주제를 명확히 나타내어 주는 구실을 하며, 묘주 권상유의 청명직절한 성품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어투를 사용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강한 신뢰를 갖게 한다.

이것이 陶谷이 추구한 편법과 장법에서의 ‘簡嚴’의 추구이다. 각 단락에 포함될 소재를 선택함에 있어서 묘주의 일생의 행적에서 일어난 소소한 사건들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묘주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을 찾아내 찬자의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단락을 구성하고, 각 단락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전체적인 주제를 드러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陶谷 스스로가 강조한 ‘簡嚴’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면면을 살필 수 있다. 또, 이와 같이 동일 어구를 통해 편장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법은 字句의 차원이 아닌 篇章의 차원에서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는 곧 陶谷이 제재의 선택을 얼마나 엄하게 하고, 또한 이 제재를 정밀하게 배치하여 이

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2. 주요 사건 중심의 일관된 서술

대부분의 비지문은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찬명동기 - 묘주의 성명과 世系에 대한 소개 - 묘주의 생몰과 葬地 및 妻子孫에 대한 소개 - 지내온 官歷 - 性品 - 銘의 6부분으로 구성된다. 陶谷은 이 구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嚴’을 적용해 묘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소재와 방법을 선택해 서술하는 방법으로 인물을 드러냈다.

陶谷이 묘주의 일생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사용한 방법으로 묘주가 겪은 대표적인 사건을 매우 상세하고도 실감나게 기록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묘주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영화처럼 실감나게 구성하는 것으로 구현되었다. 이를 통해 陶谷은 묘주가 가진 충의지사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인 문장이 <贈禮曹參判宋公神道碑銘 并序> 이다.

<贈禮曹參判宋公神道碑銘 并序>

① 인조반정 오년 정묘에 항복한 장수 姜弘立이 오랑캐를 유도하여 끌어와 침입하자 義州와 安州가 차례로 붕괴되었다. 이때 宋公圖南이 永柔縣令으로 있다가 전사하니 조정에서 그 충의를 기리고 숭상하여 禮曹參判을 추증하고 禮官을 보내 致祭하였으며 3년동안 녹봉을 지급하였다. 숙종 을묘에 旌閭를 세우도록 명하였으며, 임술년에 평안도 관찰사 李公世華의 말에 따라 안주에 사당을 세우고 당시 국사에 죽은 여러 사람들을 합하여 배향하였는데 이 일이 알려지자 忠愍書院이라 사액하고 또 예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냈다. 공은 문관으로 적을 꺾고 막는 것은 그의

所長이 아니었으나 마침내 분연히 일어나서 仁義로 방패를 삼고, 이기지 못하게 되자 시신을 원야에 눕혀서 신하의 敵愾하는 절개를 바쳐서 영원히 명성을 천억년에 날렸으니 어찌 의연한 열장부가 아니겠는가!

仁祖反正之五年丁卯，降帥弘立導虜入寇，義州、安州相繼崩潰。宋公 圖南以永柔縣令死之，朝廷褒尙其忠，贈禮曹參判，遣禮官致祭，給祿終三年。肅宗 乙卯，命旌閭，壬戌，以觀察使李公世華言，立祠安州，與同時死事諸人合享之，事聞，賜額‘忠愍’，又遣官以祭。公文吏也，折衝禦侮，非其所長，而乃奮然而起，以仁義爲干櫓，不勝則橫屍原壑，以效臣子敵愾之節，永垂聲於千億，豈不亦毅然烈丈夫哉。

② 공은 평소는 잡아 지킴이 있어서 광해군 때에 간사한 정승인 박승종朴承宗이 궁중의 원조를 맺어서 기세가 아주 대단하였으니 여러 사람이 그에게 붙는 자들은 낮은 벼슬로부터 당장에 높고 현달한 자리에 오른자가 서로 이어졌다. 그런데 공은 그의 그 中表의 가까운 친척으로 그를 피하기를 염병과 같이 하여 끝내 오염된 바가 없었다. 적신 李爾瞻이 廢母論은 제창하자 대관 鄭造 · 尹訥과 유생 李偉卿 등이 서로 글을 올려 모후의 죄를 아뢰니 중외에서 분통을 느꼈으나 감히 말하지 못했는데, 공이 李安眞 등과 함께 항거하는 소를 올려 법에 따라 이들을 주벌할 것을 청하였다. 공은 과거에 급제하자 길에서 흉당을 만나면 번번히 꾸짖어 배척하고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다. 이로 말미암아 芸閣에 나누어 배속되고 태상의 말직을 겸하게 하여 꺾고 욕을 당하였으나 얼마 후에 좌천시켜 평안 평사가 되게 하였으니 그 평소에 수립한 바가 이와 같았다.

公雅有操秉，當光海時，倖相朴承宗結輿援，勢焰熏灼，諸附麗者繇庫仕立登崇顯者相望也。公以其中表近親，避之若厲，終無所點染。賊臣爾瞻倡廢母論，臺官鄭造、尹訥，儒生李偉卿等，交章罪狀母后，中外憤痛而不敢言。公與李安眞等，抗疏請按法誅之。既登第，路逢兇黨，便叱斥不顧而去。由是分隸芸閣，兼太常末僚以挫辱之，尋黜爲平安評事，其平素所樹立，已如此矣。

③ 그러다가 永柔縣을 맡게 되자 오랑캐들이 관서지방으로 대거 침략

하여 安州에 이르렀다. 평안도 병사인 안이흥과 안주목사 김준이 막 머물며 주둔하여 적을 막고 있으니 온 도의 수령들이 각기 병력을 인솔하고 일제히 달려갔는데 이때 문신의 읍재는 의례히 대신하여 장교를 보내었다. 관리가 예전의 예를 가지고 말하자 공이 말씀하기를 “군대는 대사이니, 대신한 장수로서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 가하겠는가”하고 마침내 직접 영솔하고 달려갔다. 남공은 공이 헛되이 죽는 것을 애석히 여겨 가라고 권하기를 매우 강력히 하자 공은 분개하여 말하기를 “국난을 임하여 몸을 잊는 것이 유독 무신들만의 일인가”하니 남공은 공이 의지가 확고함을 알고 검종사관을 삼아 하여금 격문을 초하여 오랑캐들에게 유시하게 하였다. 그러자 공은 붓을 잡고 당장에 써 내려감에 그 글 뜻이 격렬하니 보는 자들이 모두 감탄하여 복종하였고, 남공 또한 얼굴빛을 변하여 경의를 표하였으나 저들의 노여움을 도발할까 두려워 공에게 약간 고칠 것을 권하였다.

정월 21일 새벽에 적들이 나무사다리를 가지고 성을 침범하니 남공은 이미 성이 반드시 함락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성의 남쪽은 낮고 성의 북쪽은 높으니 함락은 반드시 남쪽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라 여겨 공으로 하여금 북쪽을 지키게 하였고, 또 철갑을 보내주었다. 공은 철갑을 나무위에 걸어놓고 말하기를 “성이 장차 함락하게 되었으나 철갑을 입고 몸을 호위하여 무엇을 하겠는가” 하였다. 처음 공이 안주로 달려갈 적에 두 아들을 불로 대면하면서 한마디도 집안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손수 ‘남아사업금일결의[男兒事業今日決矣](남아의 사업은 오늘 결판난다)’라는 8자를 써서 집에 보내었다.

이날 저녁에 적들이 사다리를 부여잡고 개미떼처럼 성에 붙어 올라오니 우리 병사들이 창검을 가지고 공격하였으나 형세가 대적할 수 없었다. 잠시 후에 적이 이미 성안에 가득하여 사람들을 이리 저리 죽여서 낭자하였다. 남공과 김공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줄 알고 마침내 염초와 유황에 불을 놓아 스스로 불타 죽으니 군사와 백성들이 어지러히 흩어졌다. 적은 군사와 백성들을 모두 모아 어육을 시키니 항복하는 자들이 서로 이어졌다. 공은 전포를 입고 성 머리에 서서 활을 당겨 적을 쏘고 있었는데, 적이 활을 쏘아 공의 불을 맞추어서 피가 이리저리 흘러

얼굴을 덮었다. 그러나 공은 얼굴빛을 조금도 변치 않고, 서서히 차고 있던 패도를 뽑아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고 죽을 때까지 활을 놓지 않았다. 적의 화살이 고슴도치 털이 모이듯 하여 공이 마침내 쉼나무 더미에 누어 죽으니 하인인인 김승이와 현속인 위전등이 공의 시신을 수습하여 화살을 가지고 복을 부르니 향년 52세였다.

及任永柔，虜大搶西關，至安州。兵使南以興、牧使金浚方留屯以扼賊 一路守令，各領兵齊赴，文宰則例代送將校，吏以舊例白，公曰：“兵大事也，以代將領赴可乎。”乃自領往。南公惜公徒死，勸去甚力，公慨然曰：“臨難忘身，獨武夫事耶！”南公知公意堅，爲兼從事官，使之草檄諭虜中。公操筆立成，辭意激烈，觀者感服，南公亦動色，恐挑彼怒，至勸公略改。

正月廿一日曉，賊以木梯犯城，南公已慮城必陷，城南低北高，陷必自南始，令公守北，且遺鐵衣。公掛之樹上曰：“城將陷矣，衛身何爲。”始公將赴安州，招二子面之，無一語及家，至是手書，‘男兒事業今日決矣’八字，以貽家。是夕，賊攀梯蟻附，我兵用槍劍相搏，勢不能敵。俄頃，賊已彌滿，鏖殺狼藉，南、金二公知事不濟，遂放火硝黃自燒死，軍民散亂，賊悉驅而魚肉之，降者踵相接。公着戰袍，立城頭，彎弧射賊，賊射中公頰，血淋漓被面，公色亡變，徐拔佩刀，斫衣裹瘡，至死終不釋弓。賊矢如蝟集，公遂枕堞而絕，僉人金承李，縣屬韋典等，收公屍，以矢復之，享年五十二。⁵⁹⁾

위의 신도비는 묘주가 병자호란 때 순절한 사건 하나를 잡아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다. 이 글의 경우 ①공이 청나라와 싸우다 순절한 치적을 기리는 내용과 이후 숙종대 공을 위한 사당을 세웠다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전체적인 주제를 글의 도입부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②에서는 공이 가진 평소의 성품을 기술함으로써 ③에서 이야기할 내용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③은 묘주가 순절할 당시의 전투상황과 사망하는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59) 예문 중 뒷 부분의 찬명동기와 銘부분 등은 생략하였음.

이 글의 주요 소재는 陶谷이 묘주가 문인임에도 불구하고 몸소 전장에 나아가 목숨을 바친 사건이다. 순절하기 전의 일화들은 모두 묘주의 평소 성품을 통해 순절이 당시의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나라에 대한 충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한 의도인 것으로 보이며, 순절하는 당시 전투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술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묘주의 忠義之士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陶谷의 주제의식 하에서 의도적으로 배치되고 구성된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花浦先生墓表>가 있다. 이 글의 단락은 우선 선생에 대한 소개와 관력, 두 번째, 병자호란 당시 오랑캐에게 맞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순절한 내용, 세 번째, 높은 효성과 비분강개한 성품, 네 번째, 선생이 충절에 대해 나라와 조정에서 기린 내용, 다섯 번째, 찬술 동기 5단락으로 구성된다. 이 글도 앞서 살펴본 <贈禮曹參判宋公神道碑銘 并序>와 같이 문장 대부분의 비중을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에 맞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절개를 지키다가 순절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충의의 바탕이 되는 효와 평소 성품, 그리고 추후 나라와 조정에서 묘주를 기리기 위해 노력한 면면을 담고 있다.

또 <水原府使金公墓碣銘 并序>의 경우에도 병자호란 당시 상원현감이었던 김수인이 청나라 군대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주된 소재로 잡아 구성하고 있다.

위의 예를 통해 볼 때 陶谷이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한 문장들은 모두 전란의 휩쓸렸으나 나라에 대한 충성스런 마음을 잃지 않고 목숨을 바친 인물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즉, 陶谷은 묘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극적인 장면만을 부각하여 서술함으로써 읽는 이에게 찬자가 가진 주제의식의 전달을 명확히 하였고, 주요 사건과 무관한 사소한 사건들은 과감히 제외함으로써 글 전체의 ‘簡嚴’을 획득했다.

3. 대화체와 직접인용의 활용

비지문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청탁에 의해 쓰는 글이기 때문에 묘주의 삶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표현되기도 하고, 지나치게 미화되어 기록되기도 한다. 이것이 비지문이 사실의 기록으로서 가진 한계이면서 객관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이유이다. 陶谷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화체와 직접인용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지나치게 阿諛 일변도로 흐를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과 동시에 묘주를 잘 아는 사람의 상실감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슬픔의 정도를 배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內侍敎官趙君墓表>같은 글이 바로 그러하다.

<內侍敎官趙君墓表>

① 觀察使 林川 趙公正萬이 그의 장자인 明斗를 잃고서 애도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세월이 지금 십 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면 반드시 눈물을 흘렸다. 하루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觀察使林川 趙公正萬喪其長子明斗，悼念至甚，今已近十年，而語及必涕沱。一日謂余曰：

② “우리 아이는 字가 士仰이니, 총명과 영특함이 매우 뛰어나서 5세에 詩句를 지으면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차츰 자라면서 司馬遷의 『史記』와 班固의 『漢書』, 『離騷經』과 『文選』을 두루 읽었는데, 문장을 구상함이 물이 용솟음치듯 하여 科場의 사이에서 크게 명성이 있으니, 명예를 다투는 자들이 감히 앞서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司馬試의 장원을 가장 중시하였는데, 나의 고조인 雲江公과 증조 竹陰公, 조고 近水公이 모두 이 선발에 뽑히시니,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지목하면서 부러워하며 말하기를 ‘삼장원의 집안이다.’라고 하였고, 불초한 나도 또한 선대의 뒤를 따라 장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오직 선고이신 郡守公만이 뒤

이어 합격하였으나 남에게 굽혀서 겨우 1등이 되시니, 온 세상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말하며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유년(1717) 가을에 과장에 나아가 매우 아름다운 글을 지으니, 사람들은 모두 장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또한 1등에 그치니, 銓曹에서 애석히 여기고 內侍敎官을 제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문장을 스스로 만족해 하지 않고 聖賢의 가르침에 돌이켜 구해서 연구하고 체행하여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찍이 삼연옹[金昌翁]에게 강론하고 질정하여 그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조금한 병통이 있었는데, 끝내 矯正하여 다스려서 사람을 접하고 사물을 대할 적에 한결같이 너그러움과 여유로써 하니, 呂伯恭과 謝顯道가 기질을 잘 변화했던 것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그 훌륭한 행실을 말한다면 아버이를 섬긴 여러 가지 일에 볼만한 것이 많았으며 이것을 형제간과 종족들에게 미루어서 각각 그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부귀한 가문에 장가들었으나 화려한 습관에 물들지 않았으며, 그 집에서 집을 지어주어 거주하게 하였으나 아우에게 주기를 술잔에 든 물을 거두는 것처럼 쉽게 하였으니, 이 또한 사람들이 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가 마땅히 걸출하게 성취하여 집안의 명성을 크게 드날릴 것으로 여겨 기대와 희망이 적지 않았는데, 마침내 경자년(1720) 5월 13일에 요절하니, 나이가 겨우 34살이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망치게 함이 또한 혹독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칭찬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니, 내 말이 어떻게 남에게 믿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三淵이 그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며 지은 제문에 ‘문학과 재주와 경륜은 진실로 당세의 아름다운 선비였다.’ 하였고, 遂菴翁[權尙夏]이 글을 지어 애도하기를 ‘그가 태어난 장차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듯하였는데 끝내 여기에 그치고 말았구나.’ 하였으니, 이 어찌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吾兒字士仰，聰悟絕倫，五歲，出句語驚人，稍長，遍讀馬、班、騷、選，文思水湧，大有聲於場屋間，爭名者莫敢先。我國最重司馬魁，我高祖雲江公、曾祖竹陰公、祖考近水公，皆登是選，人指以艷之曰：‘三壯元家！’ 吾以不肖，亦踵先武占魁。唯先考郡守公垂登而屈於人，纔爲一等，舉世譁然稱惜。吾兒於丁酉秋，就試所作絕佳，人皆以壯元歸之，亦止於一等，銓曹惜之，

爲除內侍教官。然吾兒不以文藝自足，反求之聖賢謨訓，玩繹體行，蚤夜不怠，亦嘗講質於三淵翁，得其獎與。素有卞急之病，終能矯揉克治，接人應物，一以寬裕，庶幾乎呂伯恭、謝顯道之善變氣質矣。若言其行誼，則事親諸節多可觀，推之兄弟宗族，各盡其道。贅綺紈家，不染華靡，其家構屋以居之，推與其弟，若輟杯水，此亦人所難能也。吾以此兒爲當傑然成就，闡揚家聲，期望不淺矣，乃以庚子五月十三日夭死，年僅三十四。天之祝我，其亦酷矣。古語曰：‘其父譽之，不若非其父譽之。’吾言何足以信於人，但三淵哭其死曰：‘文學才猷，允爲當世之彥。’遂菴翁書以悼之曰：‘其生若將有爲，而終止於此。’茲豈非可信者耶!”

③ 이에 나는 말하기를,

“공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 마음이 더욱 슬퍼집니다. 내 일찍이 한두 번 대면하여 그 玉樹나무처럼 아름다운 그의 자품을 칭찬하였고 또한 會試에서 그가 지은 시를 보고 기특하게 여겼는데, 요절했다는 말을 듣고는 威明의 칼날이 부러진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오히려 마음 속에 잊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공의 말씀에 흠잡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공은 또 말씀하기를,

“그렇다면 어찌 나를 위하여 그 묘표를 지어 죽은 자와 산 자를 다소 위로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였으므로 내가 대답하기를,

“공경히 승낙하겠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그 말을 차례로 엮어 이것을 碑에 새기게 하였다.

余曰：“聞公之言，我心增戚。余嘗一再晤對，賞其玉樹之姿，亦於禮闈見其詩而奇之，及聞夭沒，不勝威明折鏹之悲，至今猶往來于心，夫豈有間於公言耶。”公曰：“然則盍爲我表其隧，以少慰死與生者。”余曰：“敬諾 遂次其語。”俾以是刻之。

④ 雲江公은 諱가 璵인데 벼슬이 承旨이고, 竹陰公은 휘가 希逸이고 벼슬이 參判이며, 近水公은 휘가 錫馨인데 벼슬이 侍直이고, 軍守公은 휘가 景望이다. 사양의 어머니 完山李氏는 署令 晉命의 따님이고 白江 相

國 敬輿의 증손녀이며, 아내 靑松沈氏는 右尹 延輔의 딸이다. 자식이 없어 아우인 修撰 明翼의 아들 德洙를 양자로 삼았다. 덕수는 인품이 밝고 순수하니, 생각하건대 군이 누리지 못한 보답이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군의 장지는 坡州 白石村에 있으니, 선영과 가까운 곳이다.

雲江公諱瑗, 官承旨; 竹陰公諱希逸, 官參判; 近水公諱錫馨, 官侍直, 郡守公諱景望。士仰母完山李氏, 署令晉命女, 白江相國敬輿之曾孫, 妻靑松沈氏, 右尹延輔女。無子, 以弟修撰明翼之子德洙爲嗣。德洙明粹, 可念君不食之報其在於斯歟。君葬在坡州白石村, 距先塋爲近云。

이 글은 ①에서 묘주의 아버지인 관찰사 임천 조공과의 만남, ②에서 조정만이 아들 사상에 대해 말하는 내용, ③ 찬술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글의 전체 분량 중 70% 정도가 아버지 조정만의 발언으로 채워져 있다. 아들의 충명함과 영특함, 과거시험에서 애석하게 1등에 그친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연옹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은 내용을 담았다. 효성과 우애가 지극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34살에 요절하자 이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슬픔을 쏟아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 찬술동기에서는 陶谷이 ②의 내용을 듣고 조정만에게 동감을 표하는 것과 묘표의 찬술을 허락하는 내용이 대화체로 이어진다. 陶谷은 묘주 사당과 한 두 번 대면하여 그 자품을 칭찬하고 會試에서 지은 시에 대해 기특하게 여긴 적이 있음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와 친숙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미 망자가 죽은지 10여년이 지난 뒤에 쓰는 글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절절한 슬픔을 陶谷의 느낌대로 짓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10여년이 지나도록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화체와 직접인용의 방식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슬픔의 정도를 배가시키며 글의 진정성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學生崔公墓碣銘 并序> 이 있다. 이 묘갈명은 부부 합장묘에 쓰기 위해 쓴 글이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락은 보명과 이의현의 대화를 통해 찬명동기를 밝히는 부분이다. 두 번째 단락은 최군이 지은 행장 담긴 아버지의 행실의 아름다움이며, 세 번째 단락은 최군의 외할아버지인 이관명이 밝힌 어머니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다. 네 번째는 어머니의 婦德, 다섯 번째는 묘주의 세계와 처 · 자손에 대한 소개, 마지막 단락은 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락에서 陶谷이 묘주의 아버지인 동구공과의 사사로운 인연을 언급하면서 가슴속으로 흠양한 바가 있었으며, 그 아들과 자부들도 남다른 점이 있으리라 짐작했다는 점으로 보아 묘주와는 직접적 인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陶谷은 이 묘갈명의 주요 부분을 청탁자인 최군 보명이 쓴 글과 외할아버지가 쓴 글을 각각 인용하므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모두 확보했다.

이 글 이외에 <恭人全州柳氏墓誌銘 并序>의 경우도 묘주 아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방법으로 글을 구성하고 있는 예이다. 단락은 우선 아들이 어머니의 世系와 성품, 돌아가실 당시의 모습을 말하는 내용과 위의 내용을 들은 작자의 심정과 찬명 동기, 그리고 묘주의 장지에 대한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陶谷은 묘주에 대해 알고 있던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객관성과 글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언이나 증거가 필요한데, 陶谷은 이를 묘주 아들의 말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自意에 의한 미화된 수식을 강행하여 阿諛로 흐르는 글쓰기 보다는 직접 인용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묘주의 삶이 진실성 있게 전달되도록 한 것이다.

<唐津縣監李公墓碣銘 并序>의 경우도 대화와 직접인용을 활용한 예이다. 이 글은 첫 번째, 이유점이란 사람이 陶谷에게 묘주의 성품과 지내온 관직을 이야기 하며 글을 부탁하는 단락, 두 번째, 이유점이 묘주가 지은 시를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학식의 높음과 충성 · 효심을 알 수 있음을 이야기 하는 부분, 세 번째, 묘주의 선조와 생몰 · 장지에 대한 간단한 언급, 네 번째, 처와 자손에 대한 소개, 마지막 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

락이 이유점이 묘주에 대해 이야기 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다. 특히, 문장의 대부분은 두 번째 단락에 할애되고 있는데, 독특하게도 묘주가 시은 자경시와 아들에게 보낸 시 몇 편을 소개하면서 이 시들을 통해 묘주의 성품이 매우 훌륭함을 내보이고 있다.

비지문은 기본적으로 묘주의 행적을 表裝하기 때문에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묘주의 행적을 치장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陶谷은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은 행장에 쓰인 그대로를 인용한 것임을 밝히거나, 묘주를 잘 아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阿諛로 흐르기 쉬운 태도를 지양하고 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글들은 모두 陶谷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지문을 서술할 때 대화체와 직접인용의 방법을 사용한 예들이었다. 그러나 죽은 딸을 위한 묘지인 <第二女金氏婦墓誌>에서 보다시피 陶谷은 至親에 대한 기록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第二女金氏婦墓誌>

① 내 늙으면서 더욱 운명이 기구하여 천지신명에게 죄를 얻었다. 경신년(1740, 영조16)에 아들이 죽었고 또 얼마 되지 않아 김씨 며느리가 된 딸이 죽으니, 거듭된 슬픔과 애통함은 사람의 정리상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울부짖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천지간이 아득하기만 하였는데, 하루는 딸의 시할아버지인 參贊公이 딸아이의 생전의 행실 약간을 손수 抄錄해 나에게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余老益奇鬱，獲罪神明。歲庚申，子死，又無幾，而女爲金氏婦者亦死，重哀疊痛，人理所難堪。叫呼隕裂，穹壤茫茫，日女之大舅參贊公手草女遺行若干條示余，其草曰：

② “죽은 孫婦의 유순한 덕은 천부적인 것이어서 단지 어른을 섬길 적

에 어른의 뜻을 어기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안사람들을 대할 적에도 또한 환심을 다하였습니다. 시집은 지 17년 동안에 한번도 말을 급하게 하거나 얼굴빛을 갑작스럽게 바꾼 적이 없어서 몸가짐과 일 처리가 모두 자연스러움에서 나와 조금도 억지로 꾸미는 마음이 없었으며, 언어와 행동거지가 대부분 절도에 맞았습니다. 손아래 시누이들과 오랫동안 한집에 살았으니, 어찌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누이들을 대함에 시종 온화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잘못을 하여도 비밀스러운 일이면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덮어주고, 정상이 비록 가증스럽더라도 또한 죽으라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품성이 담박하고 욕심이 없어서 비록 사소한 물건이라도 절대로 남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번번이 부응하여 난색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대하여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였으나 또한 가벼이 훼방과 칭찬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연 남에게 원망과 미움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늙은 여종을 집안에 데려다 놓고는, 일찍이 말하기를 ‘십년동안 나의 좌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품을 잘 안다.’ 하였습니다. 비록 기뻐하고 노여워할 만한 일을 만나더라도 얼굴빛과 말소리에 한번도 표현하지 않았고, 또한 남들과 다투거나 따지고 힐난하는 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평소 성품이 겸손하여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집안 식구들도 며느리의 도리가 순수하게 구비됨이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했었는데, 사후에 며느리의 평소 행실을 생각해 보니, 하나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이에 비로소 한 목소리로 칭찬하기를 ‘지금 세상에 다시는 이와 같은 부인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 몇 가지 일을 미루어보면 그의 德性이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대략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본래 약하여 오랫동안 고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남편을 잃은 뒤로부터 기운이 모두 소진되어 더욱 치료하기 힘든 병이 되었습니다. 계축년(1733)에 시어머니가 산후병으로 별세하니, 아이가 태어난 지 7일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천신만고로 10년을 기르면서 서로 모녀처럼 의지하였는데, 이 아이가 임술년(1742) 7월에 요절하자, 며느리는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목은 병이 다시 도져서 끝내 9월 19일에

일어나지 못하니,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하늘이 아름다운 자질과 훌륭한 덕을 이들 부부에게 부여해 주면서 배필이 되게 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뜻이 우연이 아닐 듯한데 곤궁한 운명과 짧은 수명을 얻은 것이 모두 똑 같고 또 남긴 자식이 없으니, 天理의 어긋남과 人事의 참혹함이 어찌 이에 이른단 말입니까. 죽은 손자의 葬地가 땅이 좋지 않아서 다음 달에 瑞山의 大山 廣石里 西坐의 산에 이장하였는데, 손자 며느리는 죽을 때에 옆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의 죽음이 때마침 이때를 당하여 남편과 함께 한 槨에 장례할 수 있으면 이는 다행이다.’ 하였는데, 끝내 그의 말과 같이 되었습니다.”

“亡孫婦柔順之德，得於天賦，不但事長者，無違其志，待家人，亦盡歡心。于歸十七年，未嘗有疾言遽色，持身處事，皆出於自然，無一毫作爲強勉意，而言語動止，鮮有不中節者。與其夫之諸妹長時同處，或豈無不如意底事。而處之怡然，始終如一。婢僕有罪過，事係幽暗，則必爲之掩覆，情雖可惡，亦未嘗詈之以死。天稟淡然無欲，雖微細之物，絕不干求於人。人有求之，輒應副無難。於人涇渭甚明，而亦不輕加毀譽，故自無怨惡於人。有老婢無所依歸，置之家中，嘗言：‘十年在左右，慣知其人品。’雖遇可喜可怒事，一不形見於色辭，亦未見與人有爭競辨詰語。雅性謙遜，不要人知，家人不知其婦道之純備如此，及至死後，念其平生所爲，無一可疵。老少上下始乃同聲稱之曰：‘今世上，不可復見如許婦人。’推此數事，其德性之天成，槩可見矣。氣本清弱，久抱沉痾，自喪所天，漸毀無餘，轉成難醫之疾。癸丑，其姑以產病逝，兒生纔七日。艱辛鞠養，以至十歲，相依如母女，女於壬戌七月夭化，悲哀太過，宿病添劇，竟以九月十九日不起，痛哉！痛哉！天以美質令德，賦與於渠之夫婦，使作配耦，則其意似非偶然，而窮命短造，一皆同符。又無遺餘血屬，天理之乖舛，人事之慘切，一何至此。亡孫之葬，地不利，以其翌月，移窆於瑞山 大山 廣石里負西之原，渠死時語傍人曰：‘吾死適當此際，得與同槨而葬，是可幸也。’卒如其言。”

③ 참찬공의 말씀은 여기까지였는데, 글자마다 모두 지극한 정성과 깊은 심중에서 나와서 비록 길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더라도 눈물을 줄줄 흘릴 것이니, 나의 심정이야 하물며 말로 표현할 수 있

겠는가. 나는 딸을 잃은 이후로 짧은 글이라도 지어 슬픈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였으나 붓과 마음이 모두 썩어 들어가 끝내 슬픔을 억누르느라 글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생각하기를 ‘딸이 나에게서 나오면 어찌 남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겠는가.’ 하였다. 이 때문에 주저하고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참찬공의 글이 질박하면서도 자세하고 간략하면서도 합당하였다. 여자가 시집가서는 반드시 시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아름다운 법칙으로 삼으니, 공의 한 말씀의 칭찬을 이와 같이 얻었으니, 딸에게도 또한 큰 영광인 것이다. 또 공은 평소 깨끗하고 기개가 높아서 남을 인정하는 일이 적었으니, 그 말씀이 어찌 더욱 후세에 믿음을 받지 않겠는가. 마침내 모두 공의 글을 따라 써서 하여금 그 남편의 幽石의 곁에 새기게 하는 바이다.

參贊公之言止此，而字字皆出至惻深衷，雖使行路聞之，亦爲之涕簌簌下，在余腸肚，況也可言。余自哭女之後，欲略記小文字，以叙哀悰，而筆與心俱腐，卒掩抑莫遂，又念：‘言出於余，豈能見重於人。’以此越趨未果，今參贊公之言，質而詳，簡而當。夫女子出嫁，必以善事尊章爲懿，則得公一言之獎，於渠榮亦大矣。且公素勁伉少許可，其言尤豈不信於來後耶。遂一從公言而書之，俾鑱於其夫幽石之傍。

④ 딸은 肅宗 임진년(1712, 숙종38)에 출생하여 15세에 시집을 갔고 시집간 지 9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과부가 된지 9년 만에 지하로 남편을 따라가니, 나이가 겨우 31세이다.

女以肅宗壬辰生，生歲十五而嫁，嫁九年而寡，寡九年而下從，年才三十一。

⑤ 딸은 본관이 龍仁이니, 조고 諱 世白은 좌의정으로 시호가 忠正公이고 아버지인 나도 또한 외람되어 선대의 자취를 밟았다가 죄를 짓고 쫓겨났다. 아이의 어머니 宋氏는 선대의 賢臣인 圭菴 宋麟壽의 후손이다. 남편 집의 계보는 사위 김씨의 묘지문에 자세히 기재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쓰지 않는다.

女系出龍仁，祖考諱世白，左議政忠正公，父宜顯亦嘗猥躡先蹟，以罪廢

退。母宋氏，先正圭菴之後。夫家族派，具載金氏墓文，此不著。

이 글은 김성주에게 시집간 둘째 딸의 묘지이다. ①에서 딸을 잃은 슬픔과 찬명동기를 밝히고 있으며, ②에서는 시아버지인 참찬공의 말을 빌어 딸이 가진 덕성과 성품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 ③에서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실었고 ④에서는 생몰연대를 ⑤에서는 世系를 기록하였다.

특히 ② 부분은 딸의 시아버지가 쓴 딸의 행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딸의 생전 높은 덕성과 품성, 행적의 고결함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보장받고 있다. 곧 陶谷이 이 글을 직접인용의 방법으로 서술한 이유는 陶谷 자신이 “나는 딸을 잃은 이후로 짧은 글이라도 지어 슬픈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였으나 붓과 마음이 모두 썩어 들어가 끝내 슬픔을 억누르느라 글을 이루지 못하였고, 또 생각하기를 ‘딸이 나에게서 나오면 어찌 남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겠는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극한 슬픔으로 인해 글을 짓기 어려웠으며, 글의 진실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다.

즉, 앞서 보았던 예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을 타인의 말에 의지함으로써 글의 진실한 ‘嚴’을 획득했다면 이 글은 至親의 죽음을 기록하는데 타인의 입을 빌림으로써 글의 사실 논란을 사전에 잠재우고 객관성과 사실성을 확보하여 ‘嚴’을 획득한 것이다.

4. 銘을 통한 진정성의 획득

앞서 살펴본 「季妹貞夫人墓誌」는 마지막에 銘이 생략되었다. 이 글이 실려 있는 『陶谷集』 권8의 「묘지명」에는 自誌를 포함하여 총 17편의 글이 있

다. 이 중 銘이 없는 묘지는 「亡子墓誌」, 「仲姊孺人墓誌」, 「季妹貞夫人墓誌」, 「伯姊孺人墓誌」 등 7편이다. 그런데, 이 7편은 모두 陶谷의 아들과 딸, 누이 등 陶谷의 至親에 대한 기록이다.

碑誌文에서 銘은 序에서 서술했던 묘주의 행적을 요약하거나, 序에서 전개했던 논의를 정리, 묘주의 죽음을 애도, 찬자의 감회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⁶⁰⁾ 이러한 명문은 산문에 비해 축약된 형태로 시를 쓰는 것처럼 운자를 사용하고 자구를 맞추는 등의 시적 수사를 구사하기 때문에 문학적 기법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문학적 기법이 가미된 명을 지친의 죽음을 슬퍼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찬자의 내면에 있는 슬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앞서 본 「季妹貞夫人墓誌」에서 “나는 딸을 잃은 이후로 짧은 글이라도 지어 슬픈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였으나 붓과 마음이 모두 썩어 들어가 끝내 슬픔을 억누르느라 글을 이루지 못하였고……”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을 슬퍼하면서 글을 쓰지 못하는데 여유롭게 문학적 수식이 가미된 명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陶谷은 至親의 묘지에는 명을 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銘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묘주의 삶을 형상화 한 경우도 있다.

<副護軍元公墓碣銘 并序>

① 元公은 휘가 玃이고 자가 雲長이니, 증조는 湜이고, 조고 公輔는 생원이고, 先考는 士恬이며, 先妣는 淸州韓氏로 參議 壽民의 따님이다. 正에 추증된 漣과 司議 純輔와 典簿 士悅과 楊州趙氏인 생원 摯의 따님은 생가의 3대 선조이다.

元公諱玃, 字雲長, 曾祖湜, 祖公輔生員, 考士恬, 妣淸州韓氏, 參議壽民

60) 황의열, 『韓國 碑誌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118.

女。而贈正瀨，司議純輔，典簿士悅，楊州趙氏生員摯女，本生三世也

② 공은 萬曆 무자년(1588)에 출생하여 나이 87세인 갑인년(1674) 7월 24일 별세하여 原州 馬甘山의 언덕에 장례하고 配位 完山李氏를 부장하였다.

生于萬曆戊子，年八十七，以甲寅七月二十四日卒，葬于原州馬甘山之阡以配完山李氏祔。

③ 그 59년에 龍仁 李宜顯이 다음과 같이 銘한다.

其五十九年，龍仁 李宜顯銘之曰：

④ 원씨는 원주에서 나와	元出原州
대대로 고관대작을 지냈는데,	奕世蟬嫣
예조판서 孝然이	禮書孝然
우리 조선조에 가장 유명하였네.	最名我鮮

⑤ 공은 융숭한 문벌에서 출생하여	公生茂閥
호방하여 스스로 뛰어났네.	豪逸自放
梨湖 한 구비에	梨湖一曲
뜻을 따라 노닐었네.	隨意跌宕
계발을 안주 삼아 술잔을 기울이며	持螯舉白
세속의 아이들을 흘겨보았다오.	睨視俗兒
저들이 스스로 왔다 갔다 하니	渠自來往
보답할 필요가 어찌 있겠는가?	報謝何爲
大裘에 이르렀으나	年至大裘
얼굴 모습이 더욱 윤택하였네.	貌采愈渥
지상의 참다운 신선을	地上眞仙
지금에 다시 보았도다.	于茲復覩

⑥ 회혼례를 다시 거행하니	重舉雝醕
----------------	------

부인도 함께 아름다워 두 분 모두 연세가 높았네.	儷美雙高
緋衣를 입고 護軍에 이름은	衣緋護軍
실로 연치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라오.	實以齒褒
조용히 돌아가시니	儻然歸化
병으로 고통받은 것이 아니었네.	非疾非苦

⑦ 높고 밝게 잘 맞추어	高朗令終
또 후손들을 여유롭게 하였네.	又後其裕
한 아들은 杞이고	一男曰杞
두 번째는 따님이었네.	其二則女
기의 아들 始亨은	杞子始亨
행실이 돈독하고 武才가 뛰어나	行敦才武
벼슬이 知府에 그쳤으며,	官止知府
두 아들을 두니	有二男子
宅揆와 百揆인데	宅揆百揆
벼슬이 參奉과 兵使라오.	參奉兵使
내외의 후손이 많아	內外衍支
갑과에 오르고 벼슬하였네.	科甲仕宦

⑧ 공이 덕을 쌓으니	維公有積
하늘의 보답 헛되지 않았네.	天報匪謾
돌을 깎아 글을 새겨	斲石刻辭
영원한 후세에 밝히노라.	用昭悠永
장수하고 복이 많으니	壽考多祉
어찌 우리러 보고 공경하지 않겠는가?	曷不瞻敬

이 묘갈명의 구성을 살펴보면 ①은 묘주의 世系, ②는 묘주의 生沒과 葬地
마지막으로 ③부분이 銘이다.

銘 부분은 다시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④는 世系에 대한 서술, ⑤는 세속을 초탈한 신선다운 면모 ⑥은 부부의 깊은 인연과 서거 ⑦은 후손의 내역, ⑧는 찬명의 변이다. 무엇보다도 ⑤와 ⑦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⑤부분에서 공의 세속을 초탈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므로써 벼슬길에 연연하지 않은 자세와 이 때문에 묘주의 관력이 없음을 합리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⑦은 이렇게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미쳤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묘갈명은 전체적으로 그 길이가 매우 짧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량이 銘에 할애되어 있다. 그 이유는 명 부분을 살펴 보았을 때 묘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만한 사건이나 官歷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묘주에 대해 언급할만한 내용이 없다하여 일생의 세세하고 아주 사소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내어 기록하는 행동을 陶谷은 하지 않았다. 대신 명을 통해 드러낼 만한 내용을 간략히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敦寧府都正白公墓碣銘 并序>의 경우에도 편장의 대부분을 銘에 할애하여 글을 구성하고 있는 예이다. 이 글은 우선, 묘주의 성명과 선조들에 대한 소개, 둘째, 묘주의 출생과 지내온 관직, 셋째, 묘주의 죽음과 처 · 자손에 대한 소개, 넷째, 묘주와의 개인적 관계와 찬명동기, 마지막 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銘부분이 글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살핀 예와 같이 묘주의 일생에서 눈에 띄는 치적이 없거나 지낸 관직이 소소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공을 銘하니 어찌 마땅하지 않다 하겠는가. 후세들이 공의 자취를 살피고자 하면 아마도 여기서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 하면서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자신감과 마땅함을 내보이고 있다.

<淑人漢陽趙氏墓誌銘>의 경우는 더욱 銘에 집중하여 글을 구성한 경우이다. 이 묘지명은 372자 중 20여자를 제외하고 모두 銘으로 이루어졌다. 序부분

은 단지 홍계흙이 할머니의 묘지명을 부탁했다는 내용 뿐이며, 선조들에 대한 소개와 묘주의 품성, 자식들의 훈육과 효성 등과 葬地, 자손들에 대한 기록 또한 모두 명을 통해 담아내고 있다.

陶谷은 이렇듯 묘주가 지내온 관력이 거의 없거나 표장할만한 치적이 마땅하지 않을 경우 銘을 길게 서술함으로써 묘주의 일생을 구성하고 있다. 농암이 말한 “구양공이 왕단과 범중엄 두 문정공의 신도비문을 지을 때 그 문장은 2천자가 되지 않았지만, 재상이 되었을 때의 사업과 평생의 大節을 거의 남김없이 모사해 내었다”라고 한 것처럼 陶谷 또한 사람의 일생을 서술함에 자질구레한 미사여구로 序를 길게 서술하는 방법은 지양하였다. 이를 통해 陶谷은 비지문 안에서 ‘簡’을 획득했던 것이다.

V. 陶谷의 碑誌文이 가지는 文學史的 意義

陶谷 이의현은 전통적 노론 가문 출신으로 농암 김창협을 사사하였으며, 정조의 문체반정과 실학파들의 개성적 문장들이 성행하기 바로 이전 시기 조선 문단을 이끈 인물이다.

陶谷은 詩論과 산문이론을 서로 독립적인 분야로 간주하였으며, 시론 보다는 산문이론을 중심으로 자신의 논의를 펴 나갔다. 그리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산문이론을 그의 저작인 「陶峽叢說」과 「雲陽漫錄」을 통해 남겼다.

그리고 陶谷은 자신의 산문이론을 200여편에 달하는 비지문을 통해 실험하고자 하였다. 『陶谷集』중 산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碑誌文로, 전체 32권 가운데 권9에서 권 20까지 총 12권에 해당하는 분량이 碑誌文로 채워져 있다. 이는 그의 스승 김창협이 문집인 『農巖集』 36권 가운데 권 27과 권 28 두 권에서 비지문을 담고 있는 것에 비해 보아도 매우 많은 양이다. 陶谷이 이토록 많은 비지문을 쓰고, 문집에 수록한 연유는 무엇인가? 이는 陶谷이 韓愈와 歐陽脩가 이룩한 古文運動의 성과를 직접 자신의 글쓰기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문장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당나라 古文運動의 중심에 있었던 韓愈는 육조 이래 변문으로만 쓰여지던 碑誌文을 산문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抒情性을 가미하거나 議論을 주입하면서 碑誌文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성질과 문장구조가 독특한 70여 편의 비지문을 통해 古文運動의 주요 성취를 이루어냈다.⁶¹⁾

또한 歐陽脩는 「尹師魯墓誌銘」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簡而有法’의 글쓰기

61) 金容杓, 「歐陽脩의 碑誌文 分析을 통해 본 ‘簡而有法’」, 『中國學研究』 5집, 1990, pp.116~117.

를 비지문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韓愈로부터 시작된 예술적 성격의 비지문의 위치를 확실하게 완성⁶²⁾시켰다.

그리고 스승인 金昌協이 歐陽脩가 쓴 碑誌文을 극찬⁶³⁾하고, 碑誌文을 중심으로 古文論을 제시한 것 또한 陶谷으로 하여금 碑誌文 쓰기에 몰두하게 했을 것이다. 농암은 비지문을 사전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며, 비지문에서의 ‘簡嚴’의 미학을 강조하였다.

“碑文은 역사서의 傳記와 문체가 대체로 같다. 그러나 史傳體는 상세하고 풍부한 것[該贍]을 위주로 하는 반면에 비문의 경우는 오로지 간략하고 엄격한 것[簡嚴]을 위주로 한다. 그래서 韓愈의 비문에 사실을 서술한 것이 『史記』, 『漢書』의 전기와 매우 다른 것이니, 비단 문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글의 기본 성격도 당연히 그렇게 다른 것이다. 歐陽公이 사마천의 문장을 배웠으면서도 비문을 지을 적에 史傳體를 다 쓰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명나라 사람들에 이르러 비로소 순전히 史傳體를 사용하여 비문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또 옛사람들이 일을 서술한 법도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장에 요점이 없어서 비문의 간략하고 엄격한 필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⁶⁴⁾”

즉, 사전체 문장은 아주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과도 밀

62) 金容杓, 위의 논문 p.137.

63) 農巖은 「農巖雜誌」 외편에서 ‘구양공이 지은 왕문정공과 범문정공의 비문의 경우 그 글이 2천자가 채 안됐지만 그들 일생동안의 중요한 품행을 모두 묘사하였다(…… 故歐陽公作王, 范二文正碑, 其文不滿二千言, 而其作相事業與平生大節, 摸寫殆盡。……)’고 극찬하면서 ‘이를 통해 글솜씨가 있고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此可見工拙之辨也)’고 하여 歐陽脩의 비지문을 중요시 하고 있다.

64) 金昌協, 「農巖雜誌」,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제 162집, 374면: 碑誌與史傳, 文體略同, 而史傳猶以該贍爲主, 至於碑誌, 則一主於簡嚴. 故韓碑敘事, 與《史》、《漢》大不同, 不獨文章自別, 亦其體當然也. 歐陽公雖學司馬遷, 而其爲碑誌, 猶不盡用史傳體, 亦以此耳. 至明人, 始純用史傳體爲碑誌, 而又不識古人敘事之法. 故其文遂無體要, 而碑誌簡嚴之法, 掃地矣.

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상 인물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인물 자체에 귀속되지 않는 사건이나 별달리 중요하지 않은 사건도 기술될 수 있다. 즉, 史傳은 역사의 리얼리티와 의미에 대한 접근을 추구하기 때문에 대상인물 외의 구체적 사건의 서술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비지문의 경우 오로지 대상인물의 부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다. 65)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간략하고 엄격한 필법이 바로 ‘簡嚴’이며 간엄의 미학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문체가 바로 비지문인 것이다.

또한 비지문은 자칫하면 아유적 성향이 짙은 글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찬자의 엄격한 자세가 요구된다. 도곡은 언어나 字句의 간략함이 아니라 편장의 치밀한 배치를 통해 묘주의 일생에서 중요한 줄기를 잡아나가는 것을 ‘簡’이라 보았고, 그 ‘簡’을 통해 비지문이 阿諛文字로 전락하지 않고 진실성과 사실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嚴’이라 설정하였다. 66)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들을 설정하였다. 동일한 어구의 반복을 통한 分章法으로 엄격하게 편장을 운용하고, 대화체와 직접 인용의 방법 등을 통해 객관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序보다는 銘에 치중하여 서술하므로써 미사여구로 묘주를 꾸미는 일을 삼갔고, 至親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문학적 수식이 많이 필요한 銘을 짓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방법들은 도곡이 한편의 비지문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도곡의 비지문은 단순히 묘주의 행적을 기록하고 공덕을 알리기 위한 용도 뿐만 아니라 그의 산문이론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陶谷의 비지문은 당의 고문운동의 성과를 이어받고 스승의 古文論을 직접 계승한 제자로서 ‘簡嚴’의 미학을 몸소 자신의 글쓰기에 실천하기 위한

65) 강명관, 『農巖雜誌評釋』, 소명출판, 2007, pp 72~73.

66) 정순희, 「古文論과 碑誌文의 상관성-陶谷 李宜顯의 碑誌文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6, 2004, pp 256~257.

의도에서 지어진 것이며, 이는 能文家의 자기자랑을 위한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산문을 이론을 실험하기 위한 실천적 글쓰기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VI. 맺음말

陶谷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조선시대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한창이던 시기 노론의 핵심 인물이던 김창협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 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는 산문이론을 중심으로 자신의 문장론을 펼쳤으며, 200여편에 달하는 비지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실험하려 하였다. 그가 타 문인들에 비해 많은 비지문을 쓰고 이를 문집에 남긴 이유는 첫째로, 그가 문형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청탁에 의한 多作의 가능성, 둘째 고문운동의 성과를 이어받고, 스승 김창협이 비지문을 중심으로 한 고문론을 펼쳤고 이러한 고문론을 이어 받은 陶谷의 입장에서 자신의 문장론을 비지문을 통해 구현하고자 한 의도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陶谷의 반의적 산문 비평과 육경, 간엄의 중시를 중심으로 그의 문장론을 살펴 보았고, 이어 비지문을 통해 그의 이론이 글쓰기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우선, Ⅲ장에서는 반의고적 글쓰기와 ‘簡嚴’을 추구하는 陶谷의 문장론을 다루었다. 첫째로 의고파들이 가진 자구만을 모방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古人의 체재로 나만의 글을 지어 누가 보아도 나의 글임을 알 수 있는 개성적인 글을 쓸 것을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陶谷이 가진 주자주의자적인 면모를 통해 육경을 문장 작법의 전범으로 설정 하면서, 의고파들이 선진제자를 전범으로 삼아 그 자구만을 모방하는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태도를 살핌으로서 반의고주의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서도 제자서를 통한 문기 함양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모습에서는 陶谷이 가진 사고의 개방성을 알 수 있었고, 그 자신 또한 노장에 경도 되어 있으면서 제자서의 중요성을 몸소 알

고 자주 읽었음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陶谷이 말하고자 한 바가 육경의 의취를 본받아 ‘詞’와 ‘理’를 모두 갖추고, 여기에 제자서가 가진 문장형식이나 기교 등의 장점을 취하여 문기를 길러야 훌륭한 글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명나라 의고파들이 가진 ‘華而不實’하고, 字句만을 모의하며, 理는 염두에 두지 않고 진실성마저 결여된 문장 작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簡嚴’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하였다. ‘簡’이란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데 있어 주제와 관련된 제재를 잘 선택하여 이를 편장에 치밀하게 안배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주제와 구성의 유기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嚴’이란 것은 중심 제재를 선택할 때 가장 엄격하고 냉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택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簡嚴’한 글쓰기라는 것이 무조건 짧은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篇法과 章法에서의 엄격한 구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임을 보았다.

그리고 IV장에서는 ‘簡嚴’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구체적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원래 비지문라는 것이 묘주의 인물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특징적인 내용을 선택해 창작하는 것이니만큼 대상인물의 삶 전체가 모두 재현될 수는 없다. 찬자에 의해서 取舍選擇이 이루어지고, 선택된 소재들은 찬자의 의도대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適材適所에 배치된다.

陶谷은 반복되는 구법을 써서 편장을 구성하고, 묘주의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건만을 중심 소재로 채택하여 서술하는 방법, 至親일 수록 銘을 짓지 않거나 묘주에 대한 관력이나 일생의 행적이 소소할 경우 銘을 길게 짓는 방법,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의뢰인의 진술이나 타인의 기록을 그대로 기록하고 인용하여 글의 진성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얻는 방법 등을 통해 다양한 편장나누기와 구성을 실천하여 ‘簡嚴’한 글쓰기를 실천하려 하였다.

V장에서는 이러한 도곡의 비지문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도곡의 비지문은 단순히 能文家의 글자량을 위한 용도이거나 묘주의 일생을

기록하고 공덕을 칭송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의 산문이론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결과물로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보았다.

이후 스승 김창협 의 고문론과 이를 이어받은 陶谷이 가진 고문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여 스승과는 다른 독창적 문장론을 발굴해 내는 것과 별도로 구체적 문학교류 양상에 대한 연구를 깊이 진행하여 陶谷만이 가진 문장론의 형성 배경과 특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陶谷의 비지문 저술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표면적 검토에 그친 간엄 추구 경향을 심도있고 밀도있게 진행하고, 또 다르게 보이는 문학적 구현의 양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 중기 문단에서 김창협의 학맥을 잇는 陶谷의 문학사적 위치가 제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參 考 文 獻

1. 基本資料

- 金昌協, 『農巖集』, 『韓國文集叢刊』 162, 민족문화추진위원회
李宜顯, 『陶谷集』, 『韓國文集叢刊』 18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張 維, 『谿谷集』, 『韓國文集叢刊』 92,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 單行本

- 강명관, 『農巖雜誌評釋』, 소명출판, 2007.
_____,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7.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6.
심경호, 『한문 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1998.
안대회, 『조선후기시화사』 소명출판, 2002.
정 민, 『조선후기 古文論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정순희, 『陶谷 李宜顯의 古文論과 文學』, 한국문화사, 2004.

3. 一般論文

- 기정순, 「陶谷 李宜顯의 文章論 小考」, 『한문학논집』 17, 근역한문학회, 1999.
김용표, 「歐陽脩의 碑誌文 分析을 통해 본 ‘簡而有法’」, 『中國學研究』 5집, 1990.
민복기, 「陶谷 李宜顯의 反擬古의 散文批評」, 『동양한문학연구』 제 25집, 2007.
송혁기, 「18세기초 산문이론의 전개양상 일고 - 이의현, 신유한, 조귀명의

-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 31집
- 오석환, 「農巖 金昌協의 碑誌文 散文文學 研究」, 『한문학논집』, 2002.
- 오용원, 「金昌協의 문장작법론과 비지체 산문의 형식미」, 『대동한문학』 제 20집, 2004.
- 임완혁, 「비지문에 나타난 망인의 형상화 방식 - 비지문을 둘러싼 인간의 상호관계를 통해 본」, 『대동한문학』 제 32집, 2010.
- 정순희, 「古文論과 碑誌文의 상관성 재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 33집, 2006.
- _____, 「古文論과 碑誌文의 상관성-陶谷 李宜顯의 碑誌文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6, 2004.
- 정옥자, 「도곡 이의현과 그의 문학관」, 『한국사론』 11집, 서울대 국사학과, 1984.

4. 學位論文

- 기정순, 『陶谷 李宜顯 文章論 研究』,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4.
- 김하운, 『陶谷 李宜顯의 作文論 研究』,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은정, 『陶谷 李宜顯의 古文論 研究』,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8.
- _____, 『17C말 18C 전기 농암계열 문장가들의 고문론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종한, 『韓愈 散文의 分析的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 이연희, 『陶谷 李宜顯 研究』,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황의열, 『韓國 碑誌文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ABSTRACT

A Study on Togok Lee Eui-Hyun's pursuit of GanUm and its literary embodiment

- with focus on epitaphs -

Sa Kyung-hwa

Dep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e study of syntax of Lee Eui-hyun, who was Munbyung(文衡) at Youngjo-ages. His prominent part of prose epitaphs to Gamum was to seek the realization aspect of writing. He was active during the turn of the 18th century and played a key role in progressing the Komun-theory to the cultural fruits of Nongam Kim chang-hyeop, which consummated the Four Masters of Chinese and Komun-theory. In part II of the article, his academic and syntax building experience is shared. Part III deals with the logic of new creation and Ganum(簡嚴). He was criticized for the classicalism of Ming Dynasty's the

Earlier Seven Masters and Later Seven Masters, had a pseudoarchaic literary tendency, and asserted a colorful writing. He established writing a sentence for the realization of Juja's ideology, and had liberal and academic thinking by promoting writing skills. We investigated Ganum's meaning that described on epitaphs of the prose published in a collection of works anthology. In part IV, it investigated the tendency to pursuit of GanUm through example of epitaphs by his Ganum writing. Part V, deals with the history of literature a meaning.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at Togok was a progressed syntax of senior writer. He bequeathed abundant and definite prose theory such as the criticism of the pseudoarchaic literary tendency of ming's writer. He argued for the fluidity and simplicity in writing sentences, and suggested the establishment in standard writing techniques by Six Confucian classics. Also, he accepted the various men book through the cultivation and strengthening of sentences as well as by the pursuit of GanUm sentences. He left numerous and concrete prose theories.

In addition, he didn't only focus on theories, but made many attempts of embodiment through numerous epitaphs. As a result, it is more necessary to become a proficient writer than it is to become a politician or a philosopher of the same magnitude. Togok in later Chosun's literary circles became an important person.